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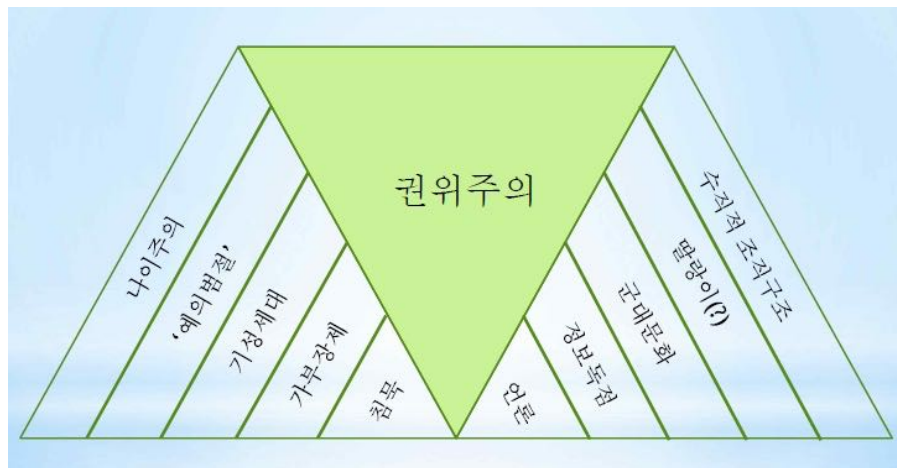
조직 내부 비판 -> 조직 내부 새롭게 구성 -> 캠페인 준비 -> 캠페인 전략 짜기 -> 실행하기

● 트레이닝에서 배운 것들

- 왜 비폭력, 민주주의인가?

비폭력 저항 운동의 성공률, 이후 민주화 이행을 등이 폭력 운동에 비해 현저히 높다. 무엇보다 목표 설정, 개인 간의 관계, 조직과 개인의 관계, 캠페인 조직, 목표 달성 후 사회변혁의 양상 등을 고려할 때 비폭력과 민주주의는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다. 혁기원이 단순히 기독교계에도 사회참여 행동이 있음을 알리는 데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혹은 정교하게 우리의 활동을 점검하고 만들 필요가 있다.

- 우리 조직이 비민주적이라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권력축 분석하기 -> 4 corners (축들 중 한 가지를 선정하여 있어서 좋은 이유/나쁜 이유, 없어서 좋은 이유/나쁜 이유를 분석한다.) / 회의와 의사결정 구조 점검 : 다수결? 소수결? 다양한 방법

- 우리 조직에서 사회 변혁을 위한 캠페인을 짤 때, 어떻게 해야 할까?

혁기원의 특성상 조직 운영이나 그에 대한 고민에 시간을 쏟기보다는 직접행동에 곧바로 나서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실제 캠페인을 만들 때 어떤 도구들을 활용할 것인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① 사회를 변화시키는 유형을 파악하고 행동한다.

ex) 개인적 설득, 언론에 알리기, 소송, 조직하기, 직접행동 ... 무엇을 택할 것인가?

② 목표는 무엇인가?

ex) 전향, 묵인, 순응, 박탈, 정서적 강제, 육체적 강제 ...

③ 무엇을 준비할까?

개인적인 지원 토대 건설 (재정, 정서적 환경 등등), 핵심 활동가 그룹을 구성하고 자신의 실력 배양, 적절한 지지층 찾기, '뜨거운' 사회변혁 이슈 선택, 사회의 미신 벗겨내기, 캠페인 타겟 설정, 캠페인 디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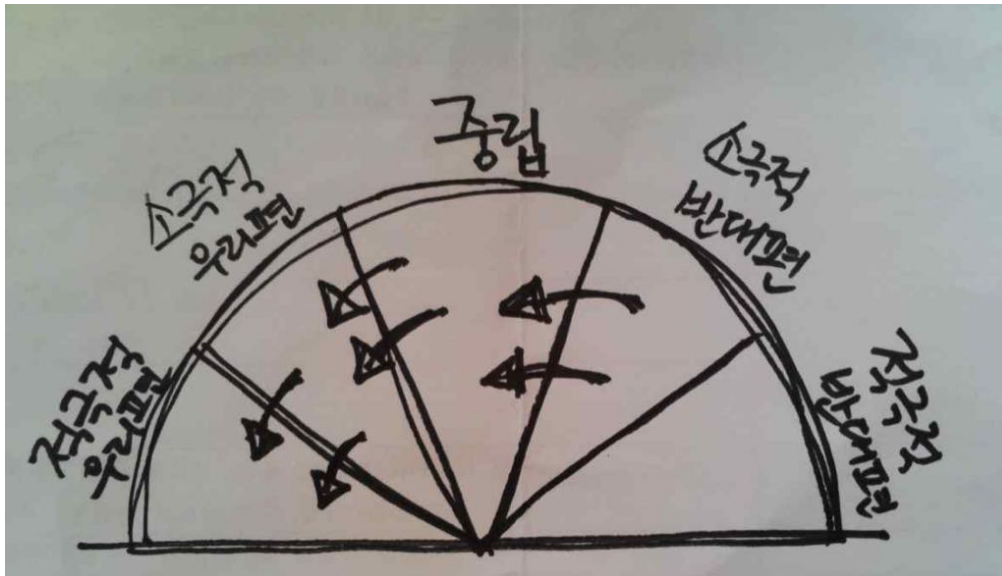
④ 캠페인의 단계는?

조사 - 협상 - 교육 - 데모 - 저항 - 인내

- 활동 속에서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전략은 무엇인가?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① 우리 편 찾기 (조직과 개인에게 Empowering (힘 전달하기))



② 어떤 사안에 대해서 취할 입장 정하기

시민, 개혁가, 변혁의 주도자, 반항아 (직접행동)

③ 전략 분석

역장 분석(Force Field Analysis) : 우리편/반대편 사이의 긍정적/부정적 힘의 크기 측정, 긍정적 힘을 살리고 부정적 힘을 최소화 할 방안을 생각한다.

전략과 관련한 다른 결정사항들¹⁾

● 혁기원의 경우

- 이미 느슨한 형태의 조직을 갖고 있으나, 조직과 운동에 대해서 분명하고 심도깊게 논의한 적은 없다. 조직화를 진행하는 것과 그것을 분명하고 심도깊게 논의하는 것은 다른 문제라고 생각한다. 혁기원은 한 가지 의제를 가지고 장기적으로 운동하고 있지 않고 이슈파이팅에 집중하면서 주로 종교적인 요소를 가지고 정서적인 측면을 건드리는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혁기원만의 비폭력/민주주의에 대한 정의와 최소한의 가이드라인, 상황별 운동방식 등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 민주적인 조직을 위해서는 현재의 기도회 중심의 느슨한 조직체에 대해서도 다양한 대안과 방향을 수집, 논의하는 자리가 필요하며, 그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비폭력 트레이닝에서 학습하게 되는 것들이다.
- 또한 사회변혁을 위한 캠페인(활동)을 만들고 실행하는 데에도 민주적인 의사결정과 조직 구성이 필요하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전의 연대를 떠올리면서 이번 트레이닝에 참여하니 캠페인을 조직하고 실행할 때 잘 된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앞으로는 트레이닝에서 학습할 수 있는 도구들을 사용해서 활동의 기준을 세우고 실행해야 한다.

¹⁾ 캠페인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변화 고려 / 언제 시작할 것인가? / 타임라인(일정) / 초창기 방법, 후반기 방법 / 누가 모든 것들을 실행할 것인가? / 의사결정 방법 / 상대가 할만한 행동들과 그것들에 대응하는 방법 / 억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 구체적인 행동, 어떻게 전략을 집행할 것인가, "수단" /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 반드시 전략 및 목표와 맞아 떨어져야 한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이 녹취록은 혁명기도원에서 진행한 비폭력 직접 저항을 위한 세미나 모임을 녹음하여 취합한 것이다. 중요한 내용이 없는 범위 내에서 편집했으며, 발언한 멤버의 이름은 신상보호를 위해 알파벳으로 처리했다. 같은 알파벳은 동일 인물이다.

9.17

(월터 윈크의 '예수와 비폭력 저항'을 읽고 토의했다.)

[사회자] : 오늘은 거의 브레인스토밍 같은 시간이니까, 조금 주제가 퍼지더라도 생각나는 것들이 있으면 자유롭게 말씀해주시면 좋겠다. 그 자체가 다음 시간들과 앞으로의 우리의 행동들을 만들어나가는 질문들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A] : 비폭력저항의 관점에서 '본 회퍼'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 궁금하다. 박성업과 같은 행동을 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사회자] : 일단 본 회퍼는 히틀러를 암살할 계획에 가담했으니까, 그 자체로는 무장투쟁 혹은 폭력투쟁의 한 편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다. 방금의 질문은, 우선 '그 자체가 옳은 것인가?', 그리고 '비폭력투쟁의 선상에서 본다면 그 투쟁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이야기로 나눠서 생각해볼 수 있겠다.

1장 토의문제 1, 2번을 이 문제와 연결해서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다.

- 토의문제 1 : 당신은 비폭력에 대해 어떤 반대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 토의문제 2 : 당신은 구체적인 시위 도중에, 혹은 철야농성 중에, 비록 시종 일관해서는 아닐지라도, 비폭력적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B] : 일단 이 책의 맥락에서는, 본 회퍼의 선택에 대한 판단보다는 본 회퍼가 폭력투쟁을 생각하게 된 동기와, '무언가 투쟁을 해야겠다'라고 결심한 그 마음까지는 공감할 수 있어야 비폭력 저항도 할 수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진다. 폭력적으로라도 저항해야 할 마음이 없는,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비폭력저항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사람에게 비폭력 저항이라는 것이 의미가 있을까?) 그래서, 본 회퍼의 문제제기까지, 그가 무엇이 잘못되었다고 느꼈는가 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좀 더 의미가 있을 것 같다.

[C] : 비폭력투쟁 이슈를 처음 접하는 입장에서 지금까지 받은 느낌은, 우리가 '비폭력투쟁'이라는 것에 대해 공부하는 이유는, 이것이 다른 방식의 투쟁보다 '도덕적으로 옳아서'라기보다는, 이것이 '효과가 좋아서'인 것 같다고 느꼈다.

그런 의미에서, 본 회퍼의 투쟁을 굳이 비폭력투쟁의 맥락에서 판단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비폭력투쟁이 아닌 다른 투쟁들에 대해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는 것보다는, 비폭력투쟁 자체가 왜 좋은지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싶다.

[D] :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올라온 글 중에 '모든 행위는 다 폭력적일 수에 없다' 라는 글에 어느 정도 동의한다. 넓은 범위에서, 꼭 투쟁이 아니더라도, 사실 인간이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어떤 한 유기체를 잡아먹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라도 우리는 다른 존재에게 어느 정도는 폭력적일 수밖에 없다. 심지어 우리가 '비폭력 투쟁'을 한다고 할지라도, '투쟁'(싸움)이라는 구도가 가지는 근본적인 폭력성이 아예 배제될 수는 없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또한, 상황과 행동의 주체에 따라서 폭력성에 대한 판단은 달라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혁기원이라는 하나의 단체 안에서 함께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는 위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최소한의 동의가 필요할 것이다.

우리의 투쟁이 완전히 비폭력적일 수는 없지만, 우리의 기준에서 어디까지는 비폭력적으로 보고 어디까지는 폭력적으로 볼지를 다양하게 논의해보아야 할 것 같다. (ex. '연행결의'는 우리의 기준에서 폭력적인가 아닌가)

[E] : 가끔씩 느끼는 것인데, 비폭력운동이 더 폭력적으로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더 폭력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또 드는 생각은, 폭력과 비폭력을 나누는 기준이 도대체 뭘까 하는 게 있다. 내가 볼 때 폭력적인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비폭력적이라면, 이것은 폭력일까 비폭력일까... 하는 생각이 든다.

[F] : 책을 전체적으로 다 읽고 나면 어떠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겠지만, 1장에서 나온 내용만 보면 '그래서 뭐가 비폭력이라는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는 것이 주효할 것 같다.

[사회자]: 예를 들어, 도로를 점거해서 드러눕는 투쟁은 과연 비폭력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 누군가는 폭력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가 우리의 기준에서 비폭력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 행동은 어디까지 인가를 논의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다.

[C] : 최근 두 가지 사건을 보면서 이 비폭력 트레이닝의 실제적인 필요성을 느꼈다. 하나는, 최근 재능교육 농성장 침탈 현장에서 밤을 새면서 겪은 일이다. (투쟁 대상과 있었던 일은 아니고) 한 행인 분이 농성 현장에 시비를 걸고 거기 있는 분들의 얼굴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 분위기가 서로 감정적으로 되어 가다가, 농성자 중 한 분이 그 행인의 스마트폰을 빼앗아서 땅바닥에 집어 던졌다. 이후 그 사건이 어떻게 흘러갔는지는 논외로 하고, 아무튼 투쟁자들이 투쟁 대상이나 시민들과의 관계에서 비폭력성을 유지하는 것의 어려움을 느꼈다.

또한 최근 있었던 현대차 용역 신상 공개 사건에서도 비슷한 것을 느끼게 되었다. 어쨌든 이런 투쟁 현장에서는 감정적인 상황들이 생기기 쉬우니까, 먼저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의 투쟁에서 비폭력성을 유지하기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요즘 교회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다 보면 아이들의 놀이 문화가 폭력적인 요소를 상당부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된다. TV에서 본 싸우는 캐릭터들(딩동댕 유치원의 '번개맨'이라든지)을 흉내 내며 싸우는 놀이도 하고, 무언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때 힘으로 그것을 얻어내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면서 우리도 어릴 때부터 그런 문화에 노출되고 익숙해져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사회자] : 마지막 이야기는 월터 윈크의 다른 책 '사탄의 체제와 예수의 비폭력'에 나오는 '구원하는 폭력의 신화'라는 단어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많이들 아실 수 있는 예가 제시된 것 같다. 방금 농성자가 행인의 핸드폰을 집어 던진 사례를 예로 들면, 과연 그 행동은 폭력적인가 비폭력적인가, 만약 이 행동이 폭력적이라면 비폭력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좋은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까를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 같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H] : 일단 폭력적인 행동을 취하면 경과가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 같다. 아주 움츠러들거나, 더 큰 폭력이 유발되거나. 그런데 두 가지 다 갈등 해결에는 도움이 안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지속 가능한 저항과 연대를 위해서는 비폭력 저항을 선택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다만 폭력과 비폭력의 기준을 합의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라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어, 방금의 사례를 이렇게 그냥 전해 들으면 폭력적인 행동으로 들리게 되지만, 실제로 현장에서 직접 보게 되면 체감 온도가 달라지게 될 것이다. 사건에 대한 짧은 서술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사회자] 어쨌든 각자의 생각을 이야기해보는 것은 중요할 것이고, 그렇게 현장의 입장과 관찰하는 입장을 교차시켜보면 의미가 있을 것 같다. 또한 앞으로의 모임에서도 이런저런 상황에 대해서 '나는 그게 폭력적(혹은 비폭력적)'이라고 생각해'라는 식의 의견제시도 서슴없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폭력 트레이닝에서는 '비폭력'과 '민주주의'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였다. '폭력/비폭력에 대한 각자의 다른 견해가 만났을 때, (그것도 일종의 갈등요소라고 할 수 있을텐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내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 '해결'이 '의견 통합'이 될 수도 있고 '각자의 의견을 고수하며 각자 투쟁'이 될 수도 있겠지만)

비폭력 트레이닝에서 했던 활동 중에, 지금처럼 간단한 맥락만 제시된 특정 상황에 대해서 다양하게 갑론을박 하게 하는 시간이 있었다. 개인적으로는 그 시간이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행동들에 대한 판단이 좀 더 선명하게 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우리가 앞으로 현장에 나가서 행동하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최대한 선명하게 다뤄보고 나가면 확실한 차이가 있을 것 같다.

[E] : 개인적으로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서 판단할 때, 그것이 정당방위인가 아니면 단순히 본능적인 행동인가 하는 것을 따져본다. 아무리 폭력적인 상황이 되어도 그것이 '정당방위'이면 법률적으로 무죄가 되는 것처럼...

[사회자] : 비슷한 맥락에서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이, 월터 윈크는 책에서 "청년들이 던지는 돌맹이가 경찰이 쏘는 총알과 참으로 같은 정도의 폭력인가?"(1장 中)라고 묻는다.

또한, 민중신학자 서남동은 "저항하는 자들이 벌이는 저항적인 행동을 폭력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배자들의 언어이다"라고 이야기했다.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강제력이 부족한 대중들이 모여서 집회를 할 때, 그들이 힘을 모아서 경찰력에 대해서 물리적으로 대항하는 것을 '폭력'이라고, 잘못된 행동으로 규정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 또 논의해볼 만한 포인트일 수 있겠다.

[I] : 지금 '비폭력'이라는 말에 사로잡혀 있다는 느낌이 좀 든다.

이 챕터(1장)에서는 비폭력에 대한 오해를 풀어주는 내용들이 있는 것 같다.

- 비폭력과 무저항주의를 일치시키는 것을 경계해야 하고, 거기에는 비폭력저항조차 차단시키려는 정치적 저의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 화해, 평화, '갈등을 없애는 것'이 기독교의 목표가 아니고 '정의'가 기독교의 목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본 회퍼가 비폭력이나 아니냐는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 그가 추구했던 것이 무엇인냐가 더 중요한 것 같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앞에 나온 이야기처럼 행인의 휴대폰을 던진다든지 용역의 신상을 던진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어떤 분이 '현장과 개념을 따로 보아야 한다'라고 쓰신 것을 보았는데, 나는 그게 따로 갈 수 없는, 타협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 생각한다. 그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싸운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가 저항하는 이유와도 맞닿아 있고.

정당방위냐 아니냐 하는 것도 크게 중요한 것 같지는 않다. 우리가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와 운동의 방향/태도가 일치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무폭력'이 아니라 '비폭력'이라는 건, 우리가 폭력을 쓸 수 없다는 게 아니고 폭력을 쓰지 않겠다는 결정이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서 딱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적극적으로 누구를 린치한다든지, 자경단이나 배트맨, '정의의 사도' 같이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사실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하는 '정의의 사도'(ex. 배트맨 같은 슈퍼히어로들)라는 것은 이 책에 나오는 '일부 평화주의자'와 비슷하지 않을까 싶다. 정말 정의를 이룩한다기보다는,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이 이룩하는 의로움, 자신들을 통해서 이룩되는 그 의로움에 더 큰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사회자] : 아까의 핸드폰을 집어던진 상황을 가지고 가정을 해보자. 만약 핸드폰을 집어던지지 않았다면 더 좋지 않은 분란들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핸드폰을 집어던져서 행인이 움츠러들어서 돌아가게 한 거라면, 그래서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예비적인 분란을 차단한 거라면, 핸드폰을 집어던진 그 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즉, 우리의 비폭력적 가이드라인을 벗어나는 행위를 했을 때, 그 행위가 의도치 않게 우리에게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맥락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럴 때 우리가 그런 맥락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논점일 것 같다.

우리가 어떠한 지향을 가지고 저항/운동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어떤 면에서는 타협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그것들을 실제 운동에서 어떻게 구성해낼 것인가에 대해서는, 우선 많은 논점들에 대한 눈에 보이는 테두리를 (잠재적이지만) 정해놓고 그것을 가변적으로 움직여나가면서 저항/운동을 해나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부분 때문에 '트레이닝'이 필요한 것이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비폭력적 운동을 하겠다고 한다면 그냥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입장을 정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혁명기도원이라는 (아주 느슨하지만) 연대체를 가지고 행동을 하자고 했을 때는 얘기가 좀 다르고, 더 디테일한 논점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폭력/비폭력의 구분이라든지, 정당방위에 대한 판단이라든지, (앞에서 말했던) 우리의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행위가 의도치 않게 우리의 운동이 목표하는 바에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때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점이라든지...

[E] : 제가 진보를 떠나고 집회를 나가지 말까 했던 사건들이 몇 있는데, 그 중 하나가 기억난다. 세월호 관련 행사였는데, 엘리베이터 안에 몇 명의 투쟁자들과 노인이 있었다. 서로 대화를 하다가 (투쟁자 중 하나가 노인에게) 갑자기 쓰레기를 던지기 시작했다. 폐쇄된 공간 안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 무서워서 떨고 있는데, 더 무서웠던 것은, 그곳의 다른 투쟁자들이 계속 노인을 향해서 쓰레기라고 하는 것이었다. 경찰도 아니고 그냥 지나가는 행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I] : 진보를 자처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들은 많다. 그보다 더 심한 폭력도 많았고... '진보 꼰대'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것도 아니고...

[D] : 진보든 보수든, 비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정치적인 노선 등이 어느 정도 제거된(그런 류의 판단을 미뤄둔) 상태에서 대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특히 처음 무언가를 같이 하자고 모였을 경우에는.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물론 여기 있는 사람들이야 서로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가 있기 때문에 관찰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워낙 느슨한 조직이다 보니... 예를 들어 우리 안에 총신에 다니는 신학생이 올 수도 있고, 한창 열정에 불타는 운동 뉴비들이 올 수도 있고... 후자의 경우 노선에 굉장히 민감한(이 사람이 어디를 지지하는가를 굉장히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기준들을 내려놓을 수 있으려면 우리 안에는 (느슨하지만) 그것과는 또 다른 방식의 판단기준들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야 좀 더 비폭력적이면서도 민주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C] : 앞에서 질문하려다 놓쳤는데, 비폭력 트레이닝을 받고 오신 사회자님의 입장에서, '비폭력 투쟁'을 하는 이유와 의의는 그것이 더 효과적이기 때문인가서인가 아니면 그것이 더 도덕적이어서인가? (어느 포인트에 더 의의를 두는가?)

[사회자] : 개인적으로는 '효과' 쪽에 조금 더 의의를 둔다. 지금도 계속 나오는 이야기지만, 폭력과 비폭력을 나누는 기준을 잡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또한, 책에서도 처음부터 나오지만, 내가 상대방과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지만, 서로가 서로를 죽이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돌아서도록 만들 수 있는 가장 최선의 (효과적인) 지향점이 비폭력적인 저항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서 비폭력 저항을 선택한 것도 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비폭력저항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도 있다.)

[H] : 이야기들으면서 드는 생각인데, 옳기 때문에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닐까?

[I] : 옳고 그름을 판정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폭력과 비폭력을 나누기 어렵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결국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고, 그 경계를 나누는 것은 정말 현장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서로 머리를 맞대서 이야기하고 그래야 가능할 것 같다.

정당방위라는 말에 대해서 조심스러운 이유는, 이게 법률적 용어인데, 예를 들어 상대방이 나보다 큰 위력을 가지고 있을 때, 그보다 더 큰 위력으로 정당방위를 행사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고, 그보다 작은 위력으로 저항해야 정당방위로서 효력이 있는 것이다. 상대방이 총으로 위협할 때 칼로 저항해야 정당방위가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고 칼이 비폭력적이냐면 또 그렇지도 않다.

체제나 사회, 구조 자체가 폭력이 되는 경우, 그 폭력에는 저항해야 하고, 그럴 때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는 문제일텐데...

마틴 루터 킹 같은 사람은 흑인들이 백인들과 평등하게 버스 타는 것이 금지된 상황에서 아예 흑인들이 버스를 이용하지 않고 굉장히 먼 거리를 걸어다니는 방식으로 저항했다. 그런 방법이 유효했기 때문에 백인들이 손을 들게 할 수 있었고, 우리의 상황에서 그런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아주 큰 고민이다.

[사회자] : 방금의 논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누군가를 비폭력 저항으로 초대할 때, 이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좋다고 생각해서 동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혹은 어떠한 당위 때문에 동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제 생각 안에서도 효과와 당위 두 가지 요소가 혼합되어 있다. 그런 면에서는, 어떠한 결론을 내려 놓는 것보다는, '옳기 때문에 효과가 있다'라는 방향에서 접근해보는 것도 가능할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추가적인 정리가 더 필요하겠지만)

제일 큰 문제는, 기독교 쪽 말고 일반적인 운동권 쪽에서도, 비폭력적/적극적인 저항에 대해서 주목하거나 최소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한 이론적으로라도 이야기되는 것이 거의 없고 사람들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SNS를 하면서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게 되는 부분이, (초대의 글에도 썼지만) 어떠한 특별한 방식과 적극적인 저항에 대한 고민 없이, 계속 수동적인 자세('괴물이 되지 말자'만 반복하는 식의)에 머무르는 이야기를 많이 접하게 된다. 그 수레바퀴를 탈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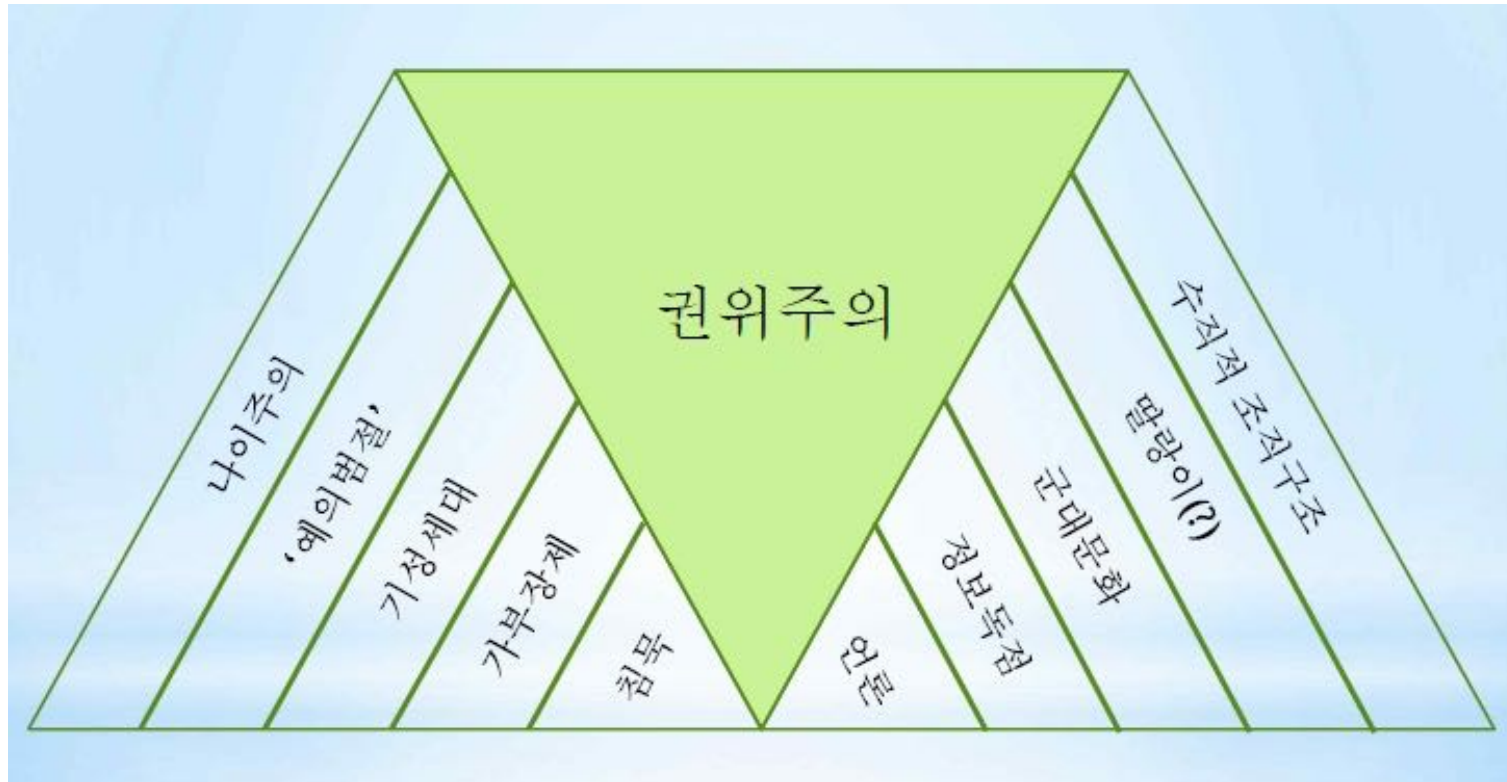
그런 의미에서 여러가지 논의들이 다 필요할 것이다. 비폭력 저항이 옳기 때문에 참여하느냐, 효과가 있기 때문에 참여하느냐. 혹은, 정당방위라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우리가 의도치 않은 효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느냐. 등등...

이 문제는 우리가 앞으로 책을 읽고 모임을 하고, 또 실제적으로 비폭력 저항을 구성해나가는 동안 계속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짜는 단계에 돌입한다 할지라도, 이렇게 추상적/개념적으로 보이는 이야기들이 필요한 지점들이 많이 있다. (개인적으로도 '개념'과 '현장'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두 가지가 늘 충돌하면서 이야기를 진행시켜야 발전이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

오늘은 이 정도에서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책 나머지 부분을 다 읽어와서,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다양한 이야기들을 최대한 늘어놓는 방향으로 진행했으면 한다.

9.24

(조직 내 문제 찾기 : 권력축 분석. 가운데에는 조직 내 비민주성을 만드는 핵심요소를 넣고, 옆의 기둥 속에는 그 요소를 떠받치는 또 다른 요소들을 넣어본다. 이 중 한 가지만 무너뜨려도 핵심 요소가 무너질 수 있다는 게 이 분석의 요지다.)



[A] 기도회 후 먹을 때 (뒷풀이), 예를 들면 곱창 포차에서 개인별 재정격차 때문에 없는 사람이 위촉되거나, 비건에 대한 배려, 음주 여부에 따른 문제, 거주지 차이에 따른 불편, 장소 설정 문제가 있었다. 포트럭 때 준비하는 이들과 치우는 이들이 자연스럽게 정해져서 치우는 사람만 치우는 문제가 있었다.

[사회자] 이와 관련해서 얘기하실 분?

[B] 나는 집이 멀다. 현장에 도착하면 밥먹기 애매한 시간이다. 뒷풀이도 못 간다. 서울 위주로 장소가 선정되는 게 문제다. 또 비싼 뒷풀이 장소 갈 때 곤란하다. 좀 다른 애긴데 사람들이 드립 칠 때도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다.

[사회자] 나는 수동성(무관심)이라고 했다. 이건 우리에게 양날의 검인 듯 하다. 경계를 최대한 낮게 할 수 있는 건 분명 장점인데, 인력이 필요할 경우 예를 들어 기자회견이나 위력시위 등의 행동을 해야 할 때는 사람이 필요하고, 이럴 때 자율적이면서도 사람들이 집중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방법은 뭐가 있을까 고민.

그리고 이야기 속에 여사도가 계속 나온 건, 여사도 중심으로 일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다. 사람들의 제안이 활발하기보다 여사도가 먼저 제안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마저도 접근성이 좋은 SNS상에서조차 의견 개진이 적은 걸 보면 고민이 된다. 의사소통을 강요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의사소통 구조"가 고민이다. 그 구조가 의지를 갖고 참여하려는 이들의 참여를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닐까?

기도회 인도자가 여사도와 나 둘이 주도하고 있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본다. 우리 기도회 특성상 사제가 필수인 것도 아니니 기도회에 익숙한 사람이 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혁기원의 지향과 추구에 대한 충분한 논의과정이 있었는지도 문제. 총회때도 얘기 안했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지향과 추구, 그에 따른 활동에 대한 최소한의 제안이 부족해서 수동성이 생긴 거 아닐까?

[B] 기도회 인도자들이 없을 때는 누가 하나?

[일동] 각자 알아서 분담한다.

[A] 나는 하고 싶었는데 말하지 못했다. 말을 힘들게 하는 정서적 부담이 있었다.

[사회자] 계속 얘기해 봅시다.

[C] 민주주의가 구성원이 주인이 되는 것이라고 봤을 때, 민주성이 잘 확립되려면 구성원이 누구인지 정의되어야 한다고 본다. 구성원이 모호한 혁기원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혁기원 구성원이라는 인식이 희미하다보니 자연스레 여사도에게 역할이 집중되고 그의 성향, 개성에 따라 흘러가게 되는 듯.

오프 모임이 주된 수단이라면 지역 문제는 불가피할 듯. 현장으로 돌아갈 때 장소 선정 과정이 충분히 민주적이라면 감수해야 할 부분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을 듯. 나중에 인원의 여유가 생긴다면 한 번에 여러 현장에 연대하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멤버 간 친목 모임과 공식적 모임은 별개로 봐야겠다. (사회자의 언급 중) 인력이 필요한 상황이 될 때, 모호한 소속감이 현재 혁기원의 정체성이라면 "정말 그 상황이 인력이 필요한 상황인가? 인력 참여가 혁기원의 역할인가?" 라는 질문을 해 봐야 한다.

[D] 느슨한 구조가 원장에게 권력을 실어준다. "주도적 활동가가 소수이다. 그 얘기는, 구성원의 자유도가 아주 높다는 뜻이고 멤버로서의 소속과 이탈도 자유롭다는 것이다." 모임 장소 등과 같은 조건들에 따라 참여도가 달라지니까. 그러니, 구속력 있는 의결기구가 애초에 불가능하다. 이 상황은 활동이 소수에게 몰리게 만든다. 초창기에 구성원을 분명히 하지 않았던 건 현장에 오고 싶지만 못 오거나, 와서도 뭘 할지 알지 못하는 이들을 입문시키기 위해서였다. 이 자유도를 포기하기는 힘들다. 그게 우리를 기도원이라 칭한 이유이기도 하고.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도적 활동가를 구성하는 작업이 먼저인 것 같다.

[사회자] 덧붙이면, 의사결정구조를 선명하게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 어떤 사안을 물어볼 때는 아무 말도 안하다가 다 지나서 갑툭튀 해버리는 상황을 방지하는 장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E] 혁기원은 느슨함이 강점이라고 본다. 투쟁 방법, 지향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구조이다. 음식문제나 거리 문제는 불가피한 부분이고. 개인이 참여도를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이 느슨함의 증거다. 이 느슨함을 유지하되, 절충점을 찾는 게 중요하겠다. 이 상황에서 조직체를 꾸리면 처음 시작할 때의 의미를 잃지 않을까?

[F] 기도원이라는 이름에서 형태가 나온다고 본다. 기독교인의 현장 입문과 정착을 돕는 역할을 잘 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결정구조는 돌아볼 필요가 있다. 방법론의 문제로 보인다.

[B] SNS가 의사결정의 통로인데, 나는 카톡을 쓰지 않는다.

[D] 카톡 내용은 페이스북에 공유되고 있다.

[사회자] 이 자리에서 확고한 결론을 내리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다. 앞으로 논의할 초점이 잘 모아진 것 같은데, 혁기원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들을 잘 얘기한 것 같다. "의사결정구조 방법"과, 지금 혁기원의 지향점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을 계속 가져갈 것인가, 유지한다면 유지시킬 방법은 뭘까? 에 대해서 추후에 논의하자. 또한 주도적 활동가가 필요한가? 에 대해서도 논의하자.

[F] 혁기원에 계속 머물러 있는 사람은 위험한 것 아닐까?

[일동] 다른 현장에 가는 것, 혁기원에 머무는 것 모두 의미가 있다.

[사회자] 현장 투쟁과 이슈 투쟁 사이에서 어떤 형태를 취할 것인가도 논의할 수 있다.

[F] 우리가 그간 무엇을 고수해 왔었는지 생각해 볼 수도 있다.

[사회자] 지금까지의 현 주소를 되돌아보는 게 이 모임의 주된 의미이니까.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A] 구조적 느슨함이 강점이긴 하지만, 의사결정 구조가 약한 건 문제다.

[사회자] 그게 보완되면 좋겠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었다.

[A]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 기구가 있나?

[사회자]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수동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원장이 결정하는 구조일 뿐이다. 구속력이라기보다는 "사람들의 참여를 최대한 끄집어내는"이라고 표현하자. 그런 절차나 기구, 구조.

(구속력 있는 의사결정구조라는 요소를 가지고 4CORNERS 돌입)

[사회자] (의사결정구조가) 있으면 좋은 점은?

[B] 합의된 의견이 나올 수 있고, 나중의 문제제기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C] 여사도가 마음의 짐을 덜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원장직이 된다!

[D] 합의에 시간이 걸린다. 갈등 발생 지점이 생기니까.

[E] 어떤 방식이든 전제는 명확한 멤버십이다. 그게 생긴다는 건 좋다고 본다.

[D] 그와 동시에 경계가 발생한다.

[A] 시간이 걸리겠지만, 구조가 없어도 합의와 결정에 시간은 걸리게 마련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원장은 피곤하고 시무룩해진다.

[F] 참여하는 사람만 하게 될 듯하다.

[D] 누군가가 결정해주기를 기다리게 된다.

[A] 어떤 모임에서 근본적 민주주의를 위해, 예를 들면 디테일한 문제를 공동으로 결정하려 시도했지만 오히려 구성원들이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으레 위에서 하던 결정이고 '이래도 저래도 좋다'고 하니, 민주성을 원치 않는 태도가 발견됐다.

[사회자] 지금까지의 연대를 보면 혁기원이 어떤 현장에 가면, 누군가는 지켜보고 있다가 자연스레 오는 촌데레적 부분이 있었다. 이건 장점이다. 의사결정기구가 뚜렷하지 않아서 좋은 점이다. 문턱을 낮게 만들어주는 요인이다.

[D] 내가 동의할 수 없는 결정이 있을 때 문제가 된다.

[A] 그 가장 좋은 예는 투쟁현장 선정이다.

[사회자] 그거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각자 알아서 판단해서 올리 말지를 결정한다.

[A] 그런 식으로 하면 갈등이 유발되던가?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사회자] 알아서 참여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갈등요소가 되지 않는다. **"강제력이 없어서 자율적이고, 그걸 발휘하는 지점이 존재한다."**

[F] 내가 의견을 낼 수 있다는 것을 잘 몰라서 참여하지 않는지도 모른다.

[E] 지금의 혁기원 상태가 좋긴 한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원장에 대한 폭력이 되지 않느냐는 거다. 혁기원에는 총회로 원장을 추인하는 과정이 있었다. 원장이 폭력적이라고 느껴서 다른 사람을 추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원장의 괴로움이 있다면 해결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대신 지금의 혁기원 구조가 효율성은 떨어져도 나름의 효율성이 있으니 좋다고 본다.

[사회자] 의사결정구조가 있을 때 / 없을 때 언제 접근성이 좋아질까? 지난 시간 얘기했던 기도회 인도의 문제를 보면, 사실 누구나 인도는 가능하다. 정서도 형성되어 있다. 하지만 인도자를 자청하기에 힘든 부분이 존재한다. 의사결정구조가 이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기도회 인도자 문제가 내부의 민주성 확보에 관건이 되고 있는 건 아닐까?"

[A] 종교 단체는 지정된 인도자가 있는 게 당연한 정서다. 자유로운 형식으로 시작해도 결국 인도자가 자연스럽게 정해진다.

[사회자] 그걸 깨는 게 전례이니까, 최대한 전례를 독려하는 쪽이 어떨까?

[F] 그런데 하고 싶다고 하면 비기독교인도 기도회 인도가 가능할까?

[A] 정해진 순서만 잘 따른다면 문제가 없을 듯. 그게 아니라면 문제겠지만.

[사회자] 자발적인 거라면, 호기심을 넘어서 태도일테니 그렇다면 괜찮다.

[A] 이 질문이 멤버십 문제를 다루는 데 중요한 것 같다. 비기독교인의 문제 말이다.

[사회자]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이드를 세워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구조에서는 여사도로부터 다른 이들이 맡아 보는 분위기로 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지 않을까?

[E] 의식적으로 교육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D] 기도회 형식을 누가 결정했는지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사회자] 그렇다. 이 모임의 취지는 우리가 갖고 있는 행동의 방식들마저도 다시 점검해보자는 의미이다. 그러니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하다."**

[E] 혁기원은 기도원이라는 정체성이 있다. 그런데 이전까지 비폭력 저항보다는 기도회가 더 주된 핵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이것이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 바뀐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D] 그러면 기도의 정의와 형태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하게 될 듯.

[사회자] 기도회가 비민주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점검할 필요는 분명히 있다. 의사결정 구조를 어떻게든 확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정하는 것이 앞으로의 민주성 확보를 위해 중요하다. 혁기원에서는 기도회 인도자의 문제, 기도회 형태의 문제가 중요하다.

[A] 절차를 통해 비폭력을 정의한다는 의미에서 민주성이 중요한 것인가?

[사회자] 그렇다. 물론 그게 전부는 아니고 민주성 자체가 중요하지만, 우리가 지금 맞춰놓은 초점 때문에 내부의 민주성을 강조하게 된 것 뿐이다. 어쨌든 중요도 있는 결정은 원장이 먼저 던지는 게 우리의 구조였다.

[C] 근데 사실 원장이 어느 현장을 가자든지 중요한 의제를 제안한 적은 없었다.

[사회자] 굳이 말하면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게 문제였다.

[D] 그보다는 **"타이밍에 맞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않는 문제 같다.

[사회자] 그 부분이 짜증날 때가 많았다. 결정되고 나서 뒤늦게 얘기를 다시 꺼내는 경우다. 그래서 필요한 시기에 좋은 방식으로 참여를 독려하는 의사결정구조에 대한 고민이 생긴 거다.

[C] 나는 소속감조차 가질 필요가 없다고 본다. 다만 그 현장에 참여하는 몇몇이 분위기를 만들어 준다는 전제 하에.

[사회자] 소속감이나 멤버십의 문제라기보다는 그런 문제로 힘이 빠진다.

[C] 딱히 기대하지 않는 게 좋다. 모든 사람들의 참여는 에너지가 너무 많이 든다. 그런 걸 기대하기는 힘들다. 지금보다 더 좋은 구조를 찾기는 힘들다고 본다. **"참여 독려를 위해서 '여러분'이 필요한데 그게 없고, 여러분을 만들 역량이 혁기원에 있나 의문이다."** 소수의 집행부는 있다면 좋겠다. 혁기원에서는 혼자 깃발 들고 서더라도 상처받지 않을 수 있는 게 중요하다.

[A] 비폭력 트레이닝에서 배운 것에 따르면, 지금 혁기원 방식의 구조를 민주적인 구조라고 부를 수 있는가?

[사회자] 가능하다. 현장에 대한 자율적인 참여가 가능하니까.

[C] 우리가 연대체로서 기능하기도 하고.

[사회자] 연대 활동에 대해서도 나름의 참여가 있었다. 그러니 가능하다.

[E] 사람들의 참여를 막는 건 아니지만, 참여도가 높은 이들만이 참여하고 있다는 의식이 생기지 않도록 경계하면 될 것 같다.

한 가지 의문을 제기하자면 혁기원의 행동을 위해 키워드를 정하고 그에 대한 정의를 만드는 게 중요할 텐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하나가 기도이고 또 하나는 비폭력 직접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게 키워드로 확정된 건가?

[사회자] 지금의 비폭력 직접 행동 모임은 지금까지의 행동을 점검해보는 것이 목적이다. 기도회조차도 하나의 요소로 놓고 점검하고 이것을 고수할 것인지 바꿀 것인지 고민하는 과정이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C] 이 모임이 다 끝나면 보고대회를 열자. 중심 키워드를 선언하는 퍼포먼스라거나. 그것을 통해, 색깔과 방향성을 선명하게 하자. 아티클을 작성하는 식으로.

[사회자] 지금까지는 혁기원의 의사결정구조를 다뤘다면, 다음 주에는 혁기원이라는 조직의 특성과 위치를 파악해보고, 우리의 주된 활동인 "기도회"를 놓고 이야기해 보자. 또한 그 기도회가 어떤 이들에게 효과를 내고 있는지 "우리 편 찾기"를 통해 파악해 보자.

10.8

(일반적인 사회변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특징을 기준으로 기도회를 분석하고 있다.)

일반적인 사회변혁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의 특징

활동의 유형	정치적 기반?	조직적?	다수의 참여가능?	일관성?	상대에게 도전?	직접적?	분명한 메시지?	다수에게 전달가능?	민주주의 구축?
무관심, 무시	No	No	.	No	No	.	No	No	No
기물 파괴	Maybe	No	No	No	Yes	Yes	No	No	No
폭동	No	No	Yes	No	Yes	Yes	No	Yes	No
테러	Yes	Yes	No	No	Yes	Yes	Maybe	Yes	No
국회 로비활동	Yes	Yes	Maybe	Yes	Yes	No	Yes	No	Maybe
선거 캠페인	Maybe	Yes	Yes	Yes	Yes	No	Maybe	Yes	Maybe
소송	Yes	Yes	No	Yes	Yes	Yes	Yes	Maybe	Maybe
사적인 설득	Yes	Yes	Maybe	Yes	No	Yes	Yes	No	Yes
연설	Yes	Yes	No	Yes	No	Yes	Yes	Maybe	Yes
거리극장	Yes	Yes	No	Yes	No	Yes	Yes	Yes	Yes
집회, 피켓팅, 행진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보이콧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파업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Yes
농성, 봉쇄	Yes	Yes	Maybe	Yes	Yes	Yes	Yes	Yes	Yes

정치적 기반? : 참여자들이 정치적 인식과 지식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이 활동이 (분노, 증오, 선입견, 두려움 보다) 정치적 인식을 가지고 성장하는가?

조직적? : 활동이 체계화되고 조직화가 되었는가?

다수의 참여가능? : 활동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아래로부터 출발하는(bottom-up) 조직을 권장하는가?(몇몇 활동가들이 참여하는 하달식 조직보다)

일관성? : 활동에 일관성이 있는가?

상대에게 도전? : 활동이 강력한 상대에게 도전하며 반응을 얻어내는가?

직접적? : 참여자들이 직접적으로 변화를 이끌어내는가?(다른 사람들을 향한 호소보다)

분명한 메시지? : 활동이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분명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다수에게 전달가능? : 활동이 다른 사람들이 들을수 있게 크고 넓게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민주주의 구축? : 활동이 민중들의 참여를 복돋는가? 활동이 민중이 결정할 수 있는 힘을 주는가? 활동이 민중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복돋아 주는가?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A] 정치적 기반.

[B] 없다고 할 수 없다.

[C] 명시적으로는 없지 않나?

[B] 하나님 나라라는 지향점은 있다.

[D] 다수의 참여가 가능하지 않나?

[B] 그렇지는 않다. 사람이 많으면 힘든 게 지금 혁기원 기도회의 형식이다. 설교가 없으니까. 거리극장 유형이 다수의 참여가 가능할 것이다.

[A] 중간 아닐까? 참여를 막지는 않으니까.

[사회자] 조직적인가?

[일동] 아니.

[사회자] 어떤 면에서는 조직적이다.

[A] 계층구조가 있고 없고와는 다른 면에서 그렇다.

[B] 일관성이 있다는 쪽이 더 맞을 듯하다.

[사회자] 정치적 기반이 있나?

[A] 아마도. 질문인데, 정치적 인식이 비슷한 경향성을 띠는 의미인가?

[B] 정치적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C] 정치적 기반이 없다고 하기는 힘들 듯.

[사회자] 있음에 가깝지 않나? 약자를 편드는 것이 하나의 정치적 경향이니까.

다수의 참여가 가능한가? 아니다에 가까운 듯. 사람 많을 때 의사소통 구조를 발휘하기 힘들어지니까.

[C] 기도회 형식 중에서 나눔만 제외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B] 가능한 한데, 형태가 변하는 것은 분명하다.

[C] 기도회가 오픈된 측면은 있다.

[사회자] 아래로부터 출발하는 부분도 있고. 결론은 중간이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일관성은 있나?

[일동] 있다.

상대에게 도전적인가?

[사회자] 적대자에게 직접 들이대는 성격이 있는가?

[B] 모임 자체가 압박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정기적인 모임일 경우는 더 그랬고.

[A] 적대자가 압박을 받는가가 중요할 것이다. 결론은 중간.

직접적인가?

[B] 우리가 북아현에서 시청을 중간에 두고 투쟁했으니 직접적이지는 않지 않나?

[A] 그렇다면 사적인 설득이 직접적이라고 보기엔...

[B] 그런 경우가 있다. 직접 적대자를 향한다면.

[사회자] 기도회는 직접적인가?

[A] 현장에 따라 달라지는 듯.

[사회자] 교회 문제일 때는 기도회가 직접적일 수도 있겠다. 결론은 중간.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는가?

[A] 약자에 대한 편뒹이라는 의미에서. 결론은 그렇다.

다수에게 전달 가능한가?

[B] 언론을 탈 때는 그렇다. 기도회 자체는 그렇지 않고.

[D] 간접적인 전달인 셈이다. 결론은 아니다.

민주주의를 구축하는가?

[B] 투쟁 당사자의 결정권을 존중했으니 그렇다고 본다.

[사회자] 기도회 참여를 주체적으로 참여하고 결정했으니 그렇다고 본다.

[B] 이 부분 감동적이다. 글로 써서 책 내자.

[C] 기도에 대한 생각이 다 다르다는 점을 보면, 여기의 분류체계를 따르다 보면 기도 자체에서 기도회의 효과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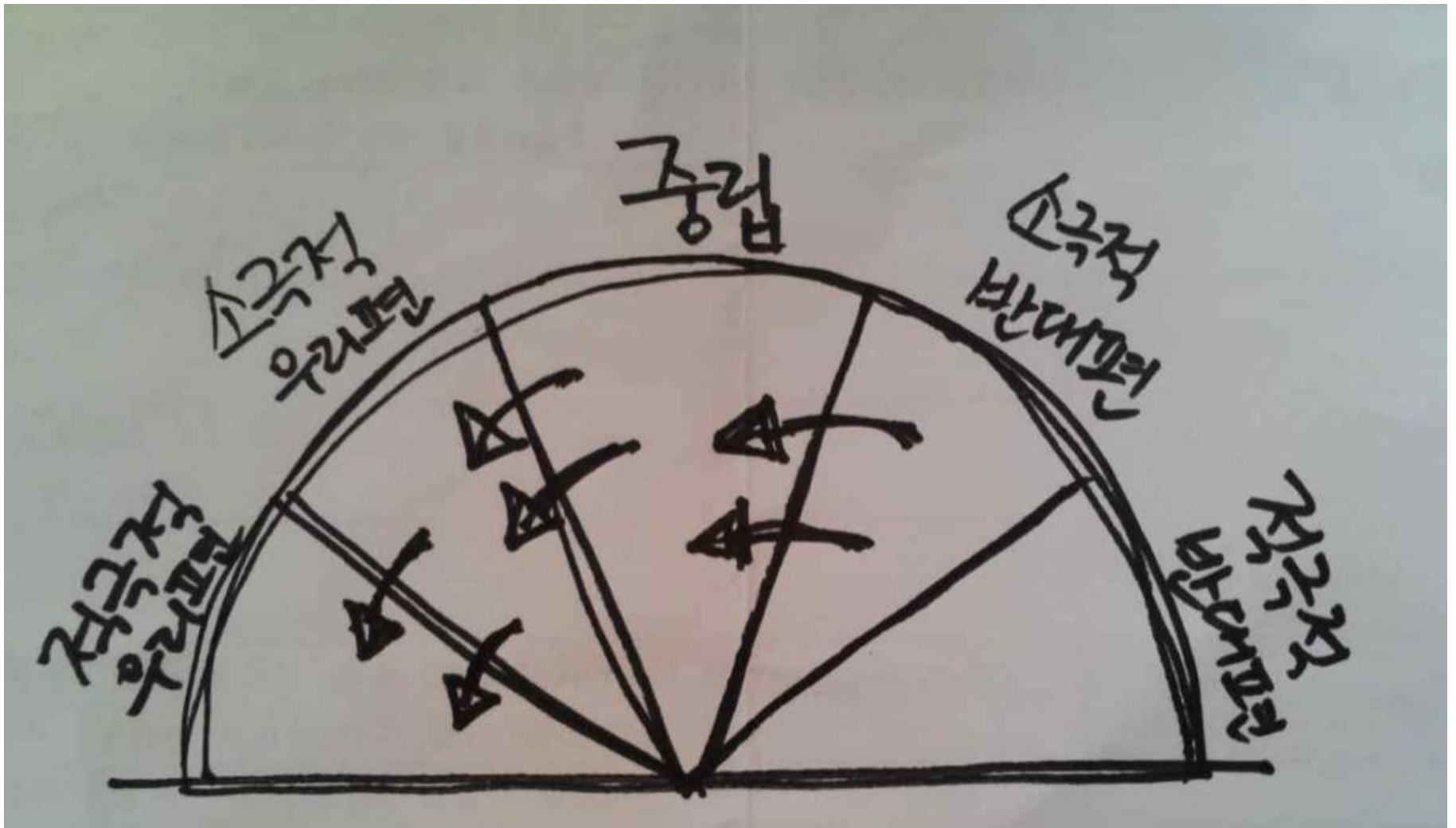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집중하는 식으로 목적이 전도될 수도 있지 않나?

[A] 나는 여기에서 기도회를 하나의 퍼포먼스로 이해했다.

[사회자] 지금까지 혁기원은 기도 자체와 기도회의 효과 사이에서 줄타기를 잘 해오지 않았나 싶다. 오늘 이 시간은 앞에서 본 기준을 가지고 점검해보는 의미 정도였다고 본다.

(기도회가 누구에게 효과적인지 우리 편 찾기를 통해 알아본다.)



[사회자]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끌어당기는 게 비폭력 저항의 목적이다. 기도회가 어느 지점에서 역할을 하는지 이야기해 보자.

[C] 적극적 반대자는 누구?

[사회자] 우리를 적대적으로 여기는 이들이다. 투쟁 대상.

[B] 소극적 반대에서 적극적 찬성으로 온 케이스가 있다. 물론 희귀하다. 소극적 찬성은 트잉여들 아닐까. 사람이 필요하면 와서 돕는 식이었다. 잔치할 때도 오고.

[사회자] 그들은 소극적 찬성에서 적극적 찬성으로 이동하는 느낌이다. 우리의 역할도 실제로 그 쪽에 있는 듯하다. 그런데 소극적 반대에서 중립이나 소극적 찬성으로 온 경우가 있나? 기도회에 참여하는 적극적 찬성 외에는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그게 기도회의 효과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게 하는 느낌이다.

[B] 혁기원을 알고 관심 갖는 소극적 찬성을 자주 보기는 했다. 혁기원이 알려짐으로써 중립에서 소극적 찬성으로 오는 경우가 늘어나는 현상이 있다. 그 알려짐은 주로 언론이나 구전을 통한 것이고.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사회자] 적극적 반대에서 조금 순화되는 경우가 확인되지 않는다.

[C] 원장의 예수 퍼포먼스를 종북으로 모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자] 결론적으로 소극적 반대에서 적극적 반대로의 이동은 극소수인 듯하다. 소극적 반대까지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 아닌가 추측해 본다.

[A] 적극적 찬성 쪽이었다가 소극적 찬성이나 중립으로 간 경우도 있을 지도. 혁기원을 떠나는 개념 보다는 다른 투쟁 현장으로 간다든지.

[B] 경향성은 있는 것 같다. 다른 단체의 이른바 기도회 열풍 같은 것? 그만큼 기도회의 저변이 확대됐다는 의미일 수도 있고.

[사회자] 기도회를 계속 한다면 우리편 찾기에서 어느 지점에 중심을 둘지 논의해 보자. 지금까지의 역할로도 만족할 수 있을까?

[B] 최근 사건에서 우리의 부족함을 느꼈다. 폭력 상황 앞에서 다른 전환적 역할을 하지 못한 점이 그렇다. "다음 현장에서 연대체의 정서를 전략적인 비폭력으로 유도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회만으로 충분한가?"의 고민이 생긴다.

[C] 현장에 있을 때 다른 연대체가 하는 폭력/비폭력 판단에 대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

[B] 서로간의 전략적 제휴를 하거나 연대를 맺는 방식으로 태도를 바꿀 수 있겠다. 폭력적인 상황에서 기독교인으로서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하나의 독특한 역할이라고 본다.

[사회자] 폭력적 대응을 하는 단체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할지 가이드라인을 짜면 태도를 정하기에 좋다.

[B] 기독교 특유의 대응이랄 수 있는 것들 (등록금 투쟁에서 깃발 대신 십자가를 들었다든가)을 기독교적인 언어 안에서 발굴하도록 노력하자.

[C] 적대자를 타자화시키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기도였던 것 같다.

[사회자] 기도로부터 우리의 행동이 시작되었던 게 맞는 것 같다. 우리가 정치적 경향성을 띠는 이상, 소극적 반대나 적극적 반대를 찬성으로 데려오기는 힘들겠지만 "중립으로 만들거나 침묵시키는 것은 가능할 듯하다. 찬성 안에서의 움직임은 유동적일테고."

10.15

(혁기원이라는 조직이 갖는 특징을 점검한다.)

조직구조

조직유형	활동/의사결정	조직형태	가입자격
지원단체	아이디어, 감정 공유 / 중요 의사결정 없음.	느슨한 토론, 지정된 코디 없음.	보통 오픈, 참가자들이 안전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제한적.
스터디그룹	아이디어, 정보 공유 / 중요 의사결정 없음.	느슨한 토론, 멤버들이 다른 멤버들을 특정 관점을 설득하기도 하나 꼭 그런 건 아님.	보통 오픈되어 있음.
강의/워크숍	보다 지식, 기술이 있는 사람이 달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표 / 중요 의사결정 없음.	매우 구조화된 아젠다, 지정된 사회자, 발표자	보통 오픈되어 있음.
1인 단체	-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도 됨. 단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
간사 혹은 간사그룹(단체)	그날그날의 임무 / 많은 단순 결정들.	의사결정은 (1) 개인의 재량 (2) 그룹의 수임 사항을 이해하고 있는 소그룹의 장 혹은 (3) 그룹의 수임사항 자체가 명확	다른 조직과 함께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및 협력적 의사결정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
워킹그룹	목표에 부합하는 임무 / 중요 의사결정 (그룹 구성원 모두의 기여 필요, 심사숙고 필수)	합의에 의한 의사결정 / 협력적 진행	다른 조직과 함께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및 협력적 의사결정 기술을 가진 사람으로 제한.
비슷한 목표와 가치를 가진 조직들의 연맹	목표에 부합하는 임무 / 그룹들이 함께 활동할 분야로 의사결정 한정	그룹 간 합의 / 협력적 진행	연맹의 목적에 유용한 단체들로 제한적임.
다양한 목표와 가치를 가진 조직들의 연합	목표에 부합하는 임무 / 그룹들이 함께 활동할 분야로 의사결정 한정	그룹 간 최소한 합의 / 의사결정구조 및 강력한 진행자 필요.주도적으로 회의 진행	보통 오픈되어 있음.
네트워크	흩어져 있는 개인이나 그룹 간 의사소통 / 중요 의사결정 없음.	느슨한 토론, 참가자가 다른 이들을 특정 관점으로 설득할 수 있으나 꼭 그런 건 아님.	

[사회자] 조직 유형 중 혁기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뽑아내는 작업을 해 보자.

[B] 혁기원이 어떤 조직이냐 와 연대했을 때 그 조직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얘기하자.

[사회자] 우리 해당사항이 없는 것부터 제거하자.

[B] 1인 단체, 간사 그룹은 아닌 듯. 간사 그룹이 되는 걸 원치 않는다.

[C] 네트워크도 아닌 듯.

[사회자] 네트워크적 특징은 있지 않나?

[D] 흩어져 있는 개인의 흠여짐은 흠여진 상태 자체에서 그 조직이 의의를 다하는 경우 아닌가? 흠여진 이들이 혁기원을 이루고 있는 건 아니지 않나?

[사회자] 오묘한 지점이 있다. 잠재적 혁기원 멤버가 있고 언제든 다시 모여들 이들이다. 또 어느 순간 흠여진 개인으로 돌아가기도 하니 어느 정도 네트워크 성격이 있는 듯.

[B] 지원단체?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C] 감정공유가 되나?

[B] 상황에 대한 분노, 공감의 공유가 돼서 모이는 측면이 있으니.

[C] 그걸 깔고 가는 거라 굳이 없는 거라고 생각.

[A] 스터디 그룹도 맞는 것 같다. 예수님이 가르치고 사람들이 배운다.

[사회자] 구조적으로는 스터디 그룹은 아닌 듯

[C] 워크숍?

[사회자] 그런 경우는 드물었던 듯. 구조적이지는 않으니까. 지원단체는 흔히 말해 후방지원하는 건데 우리는 그런 형태는 사실 아니다. 기도회를 강력한 무기로 생각하니까. 스스로를 그렇게 규정하는 건 아니고 실제로 지원을 넘어서 활동도 많이 하고. 우리가 특징적으로 가진 부분은 뭘까? 하고 싶은 거 맘대로 해도 되지 않나?

[D] 그렇다는 건 1인 단체의 경우에 그런 것 같다.

[C] 하고 싶은 일을 단체가 할 수도, 개인이 할 수도 있는 부분이라면 맞는 듯.

[B] 그 1인이 단체의 협의를 거쳐 하는 것이지 않나

[사회자]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통해 개인이 단체의 이름을 사용하는 거라면 그런 요소가 있지 않나 싶음.

[B] 1인 단체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건 단체 외적인 영역에서의 이야기 아닌가 싶다.

[D] 동의함.

[사회자] 내외적인 부분 둘 다에 신경쓰고 있지 않나?

[B] 단체 내부의 권리 문제라기보다 의사, 감정의 문제라고 본다.

[사회자] 또 뭐가 있을까?

[C] 목표가 있지 않나?

[사회자] 있다. 현장에서 목표 공유하고, 단체 자체의 목표도 있고.

[B] 재밌는 건 우리는 목표를 현장에 갈 때마다 재설정한다.

[C] 대체적으로 꿈꾸는 건 비슷하지 않나?

[사회자] 정치적 입장이 명확하다는 것 안에 비슷한 목표를 가지고 있고, 현장마다 변동되기는 하지만 현장의 목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표와 최대한 접속하는 방식을 취하지만 어쨌든 목표는 가지고 있다. 목표에 부합하는 임무, 중요 의사결정을 주요 활동으로 한정하느냐 에 대한 논의는 있을 수 있다.

[B] 현장에서 연대체에 대해 말할 때 논의해야 할 부분인 듯.

[사회자] 워킹 그룹의 특성과 비슷할까? 협력적 진행이라는 측면에서.

(잡담중)

[B] 워킹그룹 성격을 많이 갖고 있는 것 같다.

[사회자] 연대단위로서는?

[B] 연대체 구성할 때 의사결정할 권한을 갖는 경우가 생기니, 우리의 지향도 반영된다.

[사회자] 연대단위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활동가의 네 가지 역할이라는 표를 참조하자.

[B] 두 가지 정도 특징이 보이는데, 마리에서는 다양한 목표, 여가부와 북아현에서는 비슷한 목표를 가진 연대체를 꾸리지 않았나 싶음.

[사회자] 연대체로서 적극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한 건 북아현이 최초였는데, 우리가 어떤 역할을 했으며, 지금은 어떤 역할을 지향하면 좋을까를 두렵하게 해 봅시다. 시민/ 개혁가 / 변혁의 주도자 / 반항아/ 트레이닝에서는 세월호 사건을 예로 들어 점검해 보자.

활동가들의 네 가지 역할

비효과적	효과적	효과적	비효과적
- 순진한 시민: "공식정책"을 믿는다. 권력자들과 기존 제도가 권력이 없는 소수자들과 공공의 복리를 희생하여 지배집단의 특수 이익에 종사함을 인식하지 못한다. -또는- - 광신적 애국자: 권력자들과 국가에 대한 맹목적 복종	-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들과 원리, 상징들을 고무한다. (예: 민주주의, 자유, 정의, 비폭력) - 일반적인 시민 - 사회의 중심에 위치 - 반사회적 행위에 대항한다.	- 의회활동: 공식적 주류 체제 및 제도(예: 법원, 국회, 시의회, 기업 등)를 이용해 운동의 목표와 가치를 달성하고, 공식적 법률과 정책, 관습적 지혜로 채택된 대안을 마련한다. - 다양한 수단 사용: 로비, 소송, 국민투표, 집회, 후보 출마 등 - 전문대항조직(POO)은 운동의 핵심적 주도자다. - 감시자들은 집행을 감시하고, 성공을 확대하며, 반발에 대항한다.	"현실정치": 권력자들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경미한 개혁을 도모한다. - 전문대항조직의 한계: 가부장적이고 위계적인 조직 질서/구조, 조직적 유지/관리의 필요가 운동의 필요/목표를 대체한다. 지배권력이 운동의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풀뿌리 민중으로부터 권력을 빼앗는다. - 패러다임 전환을 옹호하지 않는다.
	시민	개혁가	
	반항아	변혁의 주도자	
비효과적	효과적	효과적	비효과적
- 반사회적, 반권위적이고 조직적 규칙 및 구조에 반대한다. - 전투적 급진주의자 또는 사회 주변부의 외톨이와 자신을 동일시한다. - 필요시 모든 수단을 불사: 특히 "필요하다면" 와해 전술과 기물 파괴도 가리지 않는다. - 현실적 전략이 결여된 전술 - 풀뿌리 대중과 유리 - 피해자적 태도 및 행동: 분노, 공격적, 재단적, 교조적, 무력감... "정치적 올바름", 절대적 진리, 도덕적 우월성 - 운동의 필요에 아랑곳 없이 사적인 감정과 욕구, 자유를 강하게 내세운다.	- 대항: 긍정적인 사회적 가치의 침해에 "아니오(NO)!"라고 외친다. - 비폭력 직접행동 및 비폭력적 태도 (시민불복종 등) - 대상: 공적 권력자들과 기존 제도 - 문제/정책을 공공의 관심사 및 의제로 설정한다. - 전략/전술 - 홍분을 불러일으키며 용감하고 위험을 무릅쓴다.	- 민중의 힘: 변화 과정에 일반 시민 다수와 사회 전체를 참여시키며, 이들을 교육하고 설득한다. - 대중에 기반을 둔 풀뿌리 조직, 네트워크, 활동가들 - 사안을 정치적 의제로 설정한다. - 장기적 사회 운동의 전략/전술을 추진한다. - 육성자 역할: 풀뿌리 대중의 역량을 강화한다. - 영속적 조직을 만들고 활동가들을 지원/육성한다. - 대안과 패러다임 전환을 도모한다.	- 이상향적: 너무 완벽한 비전을 고취하거나 실제 정치/사회적 투쟁과 동떨어진 대안을 실천한다. - 경미한 개혁만을 도모한다. - 운동 질서/조직의 가부장성과 억압적 위계 - 편협한 시각: 하나의 접근법을 옹호하며, 다른 것에는 반대한다. - 가부장적이고 억압적인 운동 조직/질서 - 활동가들의 개인적인 문제나 욕구를 경시한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C] 내 선택은 1, 3번. 분노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4번이 아니고, 2번은 우리가 절대 안할 것 같아서. 1번은 우리가 기도원이라는 이미지 때문에.

[사회자] 혁기원 입장이 아니라 개인적 입장이어도 됨.

[A] 1번이 가장 장기적인 것 같다.

[B] 다른 사람들 말 듣다보니 왠지 내가 반항아여야 할 것 같은 느낌적 느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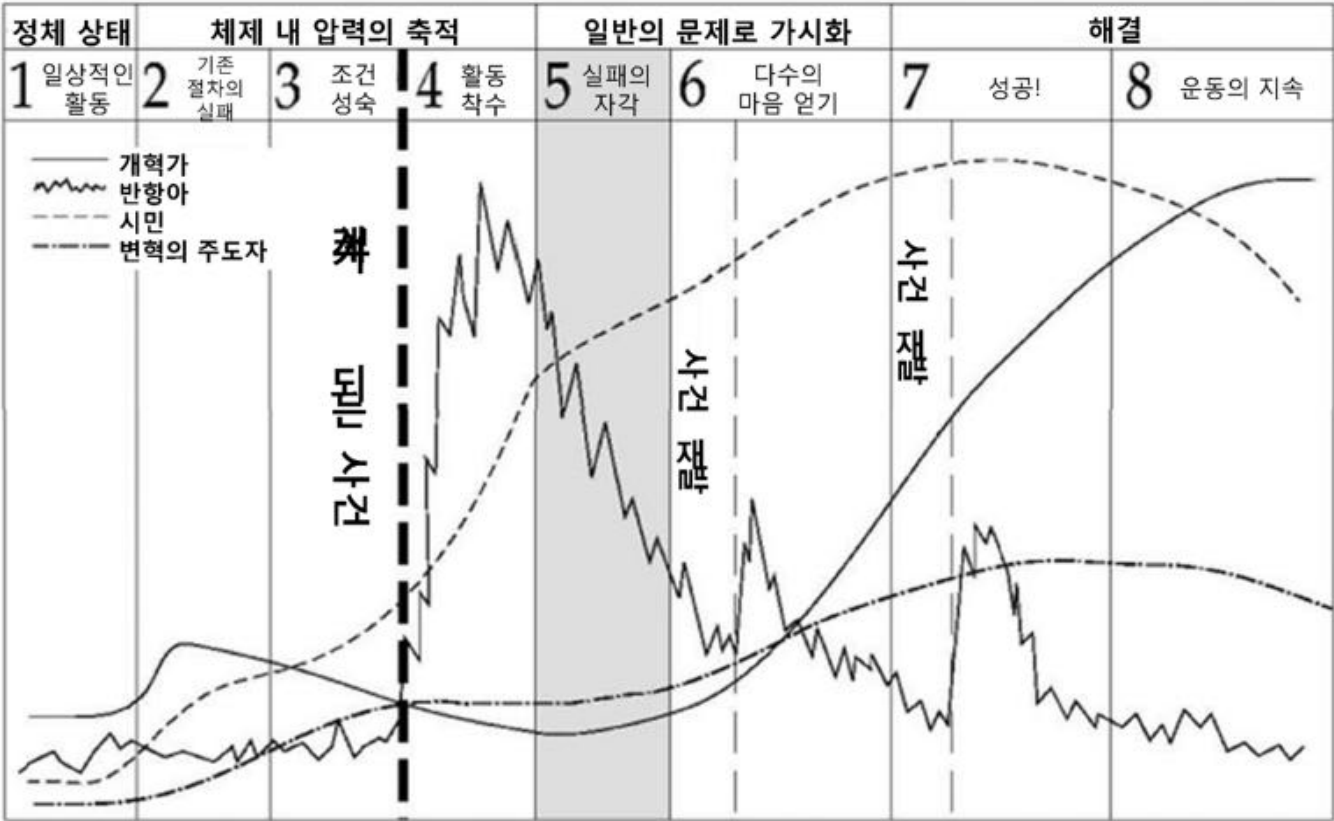
[D] 평소 성향으로는 시민. 이 중에서 '굳이' 하나 고른다면 변혁의 주도자.

[사회자] 혁기원은 3, 4번 어디쯤 아닌가 싶음. 가부장, 비민주적인 측면은 계속 지양해왔으니 2번은 아니고, 1번도 아니고. 평소에는 3번으로 있다가 필요에 의해서 4번의 측면을 드러내지 않나. 단체로서는 3번 같은데 4번과의 사이에 있는 듯.

[B] 4번처럼 그렇게 드라마틱한 행동을 했던 적은 적었던 듯.

[사회자] 어떻게 어필해야 강력할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4번의 성격이 있지 않나. 3번의 역할을 가능하게 하는 우리의 운동 형태는 기도회인 것 같다.

(그래프 살펴봄. 이 부분은 녹취하지 않았음.)



활동가들의 네 가지 역할 - 참여

Adapted from Moyer, Bill. *The Practical Strategist*. San Francisco: Social Movement Empowerment Project, 1990.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사회자] 북아현에서는 어땠나? 3번-4번 사이의 줄타기를 했었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우리가 다른 여러 행동에 참여했지만 지원단체와 변혁의 주도자 사이에 있었던 듯. 앞으로도 우리 구조상 응집력을 지향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비슷하게 흘러갈 듯. 독자 단체로는 3-4번 사이일 수 있는데 연대체로서는 더욱 그러한 듯.

[B] 상황에 따라서는 단체 내에서 밸런스를 조절하는 것도 가능하다. 누군가를 반항아로서 전위대 느낌으로 세울 수 있고, 나머지는 뒤에서 백업하는 식으로. 그들이 때로는 활력을 주고 현장과의 깊은 연대를 주니까. 어떤 때는 시민 입장의 멤버들이 부각될 때도 있고. **우리 멤버를 파악을 해서 어떤 '은사'를 갖고 있는지 식별하는 계기가 있었으면.**

[사회자] 자리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건 가능하겠다. 좋은 의견인 듯.

[C] 사람들을 3번과 4번 사이에서 헛갈리게 한다.

(휴식)

- 혁기원의 목표/목적 설정하기

사회자 전략 세우기를 할 건데, 그 이전에 최소한의 단체 내부의 비폭력 가이드 라인만 세워놔도 구체적인 현장의 목표와 접속할 수 있는 좋은 지점이 생긴다. 그래서 혁기원이 지향하는 목표를 세우는 작업이 먼저 필요하다.

[B] 대외적인 목표가, **"이런 현장이 있다고 알리는 것인 듯. 현장과 바깥 사람들의 접점을 만드는 것."**

[D] 그게 목표라면, 목표를 이루기 위한 임무를 하고 있거나 할 의향이 있는지에 따라 목표인지 아닌지 결정될 듯.

[B] 나는 목표라고 생각.

[사회자] 추상적이어도 좋음. 하나님 나라의 실현? 바깥은 어딜까? 등등. 지금까지 이랬던 것 같다는 느낌을 워딩으로 풀어봅시다.

[D] **"체제에 고통과 피해를 입은 사람들과 같이 있어주는 것"**? 그들이 **"저항"**하는 것에 함께 해주는 것?

[C]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뭔가 활동하는 것. 그 뭔가는 생각중. 앞에 나왔던 이야기와 연결해서 동의.

[D] 혁기원 내에 비그리스도인이 있어도 함께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는 단체로 이해 중.

[사회자] **"그리스도인으로서 체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저항과 함께 한다."** 현장? 바깥? 다리? 세 가지 중심 워딩이 있고 그리스도인, 체제, 저항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현장은?

[D] 내가 보고 들은 건 부동산이 관계된 거였다. 줄곧 그랬나?

[B] 그렇지는 않다. 해직 노동자와 함께하고. 부동산 관련이 많긴 했다.

[C] 정확한 워딩이 생각났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공간"**에 가서 연대하는 것.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그게 부동산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개인사업자는 다른 이들이 신경써주지 않으니까.

[B] 여가부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노조가 도울 수 없었던 상황. 홀로 싸우는.

[사회자] 우리의 현장은 "모두가 신경쓰지 않는 현장에서 고통받는"이 될 것이다.

[D] 기도회를 할 수 없는 현장이라면 갈 수 없는 점 있지 않나?

[사회자] 그렇다. 당사자가 원치 않는다면.

[D] 타종교의 문제에 대해 개입하기 힘든 점이 있는 듯.

[B] 하지만 그 사안에 대해 어느 쪽에 대한 지지표명을 할 수는 있겠다. 연대의 차원. 간섭으로 보이는 건 막아야겠고.

[사회자] 기도회 외의 다른 활동이 된다는 건데, 그런 의미에서 다른 활동 전략을 찾아야 되는 지점도 있다. (흐름 좋고~) 그러면 "바깥"은 어떨까?

[C] 전에는 사회문제에 관심없다가 생겼는데 기독교인이고 어딜 찾아가야할지는 모르는. 사실 바깥은 없을 수도.

[사회자] 사회 문제와 직접적으로 맞닥뜨릴 일이 없었는데 관심 갖게 된 뉴비. 인도함이 필요한 기독교인. 우리의 바깥일 듯. 다른 워딩 없을까? 단체 차원에서 우리에게 녹아든 경우는 없었던 듯. 보통은 개인 차원에서 접근. 문턱이 높지도 않으니까. 다른 단체에 있더라도 그냥 와서 활동 가능한.

[C] 우리가 주체가 된 적은 있나?

[일동] 없었다.

[B] 북아현은 당사자가 주체였음.

[D] 바깥을 정의하려는 이유가 뭔가?

[사회자] 우리가 신경써온 사람을 인식하는 정도. 함께하기 원하는 이들이 누구인지를 확인하는.

[D] 나는 별 의식 없다가 혁기원을 보다보니 필요를 깨닫게 된 입장.

[사회자] 그런 게 하나의 부수적인 효과인 듯. 개인의 성향에 따라 다르겠다. 혁기원에 와서 사회적 관심을 갖게 된 경우도.

[B] 현장 기도회의 경우 기도회와 시위가 분리되지 않아 불편하지만 혁기원에서는 현장과 예배 둘 다 잡고 싶은 이들의 선택지가 된 듯. 현장 기도회가 조금 더 교회와의 접점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각했었다.

[사회자] "다리"는 상징으로서 존재하는 것이니, 다리 역할을 기도회로 계속 했던 것. "그리스도인"이라는 워딩의 의미는?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C] 말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

[D] 지난 번에 들었던 얘기중에 전례가 기독교의 가장 느슨한 틀이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전례에 동참할 수 있는...이라는 것이지 않을까.

[사회자] 그걸 더 간단하게 하면, 혁기원 기도회에 함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기도회라는 게 우리에게 큰 비중을 차지했으니.

[A]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D] 비슷한 얘긴데, 고통받는 이들의 이웃이 되어준다는 가치에 동의하는, 결심한다는 정도에서 정의 가능한 듯.

[B] 적극적인 사람도 있지만 그냥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도 큰 틀에서는 그리스도인이자 않나 싶음. 교회를 떠났지만, 현장에서 만나는.

[C] 그리스도의 정신을 이어받는 사람.

[사회자] 우리 현장이나 상황에서는 "우리의 기도회 전례, 틀, 찬송, 말씀 해석 등등, 정서와 분위기에 거부감없이 어울릴 수 있는 그리스도인임과 동시에 제도적 교회에 속해있지 않아도 상관없는." 정도로 정리 가능. "체제"는 신자유주의, 비인간적인...등으로 통칩시다?

[B] 자본주의일 수도. "비인간적인"이라는 거 중요한 키워드인 듯.

[사회자] "저항"은?

[B] 위로도 있고 (기도회), 어떤 방식의 저항이냐에 대해서는 현장에 들어가서 결정하는 것들이 많다.

[D] 폭력적/비폭력적 저항 기준에 대해 우리가 저항을 선택할 때 당사자나 연대체와 우리의 의견이 다를 경우 상황에 따라 우리의 태도를 다르게 하는 듯.

[사회자]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우리의 목표에 부합하는 투쟁방식을 찾고,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을 잡는 작업을 시작합시다. 현장에서의 의사결정구조도 생각해 봅시다. 구체적 전략도 사례를 통해 찾아보고.

혁기원의 목표	
1. 현장과 바깥의 다리가 된다.	2. 그리스도인으로서 체제로 인해 고통받는 이들의 저항과 함께한다.
현장 : 모두가 신경 쓰지 않는 곳에서 고통 받는 이들	그리스도인 : 혁기원의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 제도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어도 교회 문화에 익숙한 사람
바깥 : 현장 경험이 없는 기독교인, 사회문제 뉴비로서 인도함이 필요한 기독교인	체제 : 비인간적인 구조와 정서들
다리 : 현장과 바깥을 이어주는 역할	고통받는 이들의 저항 : 목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 구체적인 권리 쟁취 수단 모색, 위로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11.5

가이드 라인 잡기 첫번째

[사회자] 비폭력이 무엇인가가 가이드라인의 기준이 된다. 혁기원 특성상 "기독교"적인 것이 무엇인가도 중요하다. 비기독교인의 비폭력과 같을 수도, 다를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한 감정적인 결론이 필요한 것이다. 폭력은 "물리적/정신적, 직접적/간접적"으로 분류 가능하다. 비폭력 직접 행동의 목적은 간단히 말해 "적대자의 변화"이다. 전향, 목인, 우리에게 대한 승인, 권력 박탈, 물리적 정서적 강제일 수도 있겠다. 문제를 일으키고 이용하는 사람들을 전향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폭력론 노트라는 책을 보면 "의사 비폭력 체제로서 존재하는 사회 폭력 정치와의 대결 또는 투쟁"이 비폭력 저항이다. 의사 비폭력 체제라는 것은 일상에서는 비폭력적인 것 같지만 폭력이 내재되어 있는 상태다.

보통 투쟁은 일단 문제를 까발리는 작업 -> 합법적 투쟁 -> 초법적 투쟁으로 강도가 강해진다. 혁기원은 주로 문제의 현장을 발견하고 현장에 가서 당사자들과 연대하는 것이 합법적 투쟁, 보통 이 안에서 머물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있거나 단계들이 섞여있을 수도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것을 고려하면서 '우리의 비폭력은 무엇인가' 이야기하려고 한다.

초법적 투쟁을 예로 들자면 5.18의 광주다. 폭력의 철학을 보면 "자율성을 세우는 것"을 중요하게 본다. 권력계층 구조가 있으면 그것 자체를 무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시공간을 만들어버리는 것이다. 치안, 행정, 경제를 광주 시민들이 알아서 해결했던 점을 본다면 자율성을 세우는 비폭력적 저항이라고 부를 수도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궁극적으로는 이것일 수 있다. 대항하거나 대안을 제시하는, 자율성을 세우는 비폭력 투쟁이다.

이런 정도의 안내와 분류 속에서 이야기를 시작합시다.

[A] 물리적, 직접적 폭력은 확연히 드러나는 것 같다.

[사회자] 하나의 논란거리는 적대자의 인권에 대한 태도이다. 적대자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일정한 정도의 힘을 가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우리가 적대자를 그의 인격을 건들지 않고 압박했는데 버티지 못하고 그가 자살을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의 투쟁은 어떤 평가를 받아야 하는지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우리의 영역을 벗어났고, 개인의 상황이 문제였다고 말할 수도 있고, 투쟁 방식을 재고할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방향들이 존재한다. 그렇기에 가이드 라인을 세우는 작업은 많이 까다로울 수 있다.

[A] 노점상의 아들과 적대자인 용역이 된 친구와의 문제 등도 있더라.

[사회자] 그런 관계 속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지를 생각해볼 수 있다.

또한 비폭력을 전략적 차원에서 혹은 도덕적 차원에서 선택하느냐의 문제도 가능하다. **적대자를 변화시키고 싶은데 여전히 감정적인 적대감이 그대로 있을 때는 전략적으로 비폭력을 택할 수 있는가?** 의 문제도 가능하다. 우리가 생각해볼 만한 요소다.

이것저것 마음대로 얘기해 봅시다.

[B] 사례를 예를 들면 좋지 않을까?

[사회자] 제일 좋은 사례는 최근의 신상털이 문제일 것이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A] 신상털이는 폭력적인가?

[사회자] 신상이 털린 용역이 적대자이긴 하지만 직접적인 적대자라고 보기는 힘든데, 그 사람에 대해서 신상털이를 한 것이다. 신상털이는 일단 정신적인 폭력이겠지.

[C] 간접적인 폭력이란 게 무엇인가?

[사회자] 러프하게 나누면 정신/직접은 면대면의 모욕 같은 것이다.

[C] 물리/간접은 뭐가 있을까? 직접/간접 분류는 좀 애매하다.

[사회자] 예를 들어 무기 바이어가 건물에 들어가야 하는데, 못 가게 둘러싸서 그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움직이는, 이를테면 고착과 비슷한 방식 같은 게 물리/간접이다.

[D] 핸드폰을 뺏어 던지는 건? 그 사람 신체에 위해를 가한 건 아닌데. 그 기준을 정하자. 재산에 대한 피해가 직접적인 건가?

[사회자] 물리/간접인데 정신/직접일 수 있다.

[C] 적대자에게 휴지꼬가리를 던진다면?

[사회자] 행위의 왜곡이 가능하다. 나는 비폭력을 했는데 상대방은 폭력으로 느끼는 것.

[E] 휴지를 던졌는데 모멸감을 느꼈다면 폭력이겠지.

[사회자] 점점 고려할 게 늘어난다.

[B] 결론을 빨리 낼 수 있는 것부터 얘기하자. 초점을 모으기 쉬운 것.

[E] 예전에 용역이 나이든 분 먹살을 잡은 사진이 올라왔는데 댓글에 그 용역에 대한 심한 욕설들이 올라왔다.

[B] 적대자를 대리하는 사람, 실제적인 적대자를 나눠서 봐야 할 듯.

[사회자] 적대자에 대한 범위설정이 중요하다.

[C] 국가를 상대할 경우는 적대자가 경찰인가? - 그렇다.

[사회자] 한 번 범위를 좁혀보자. 우리가 기독교 단체이니 "기독교"에 집중해서 얘기할 수도 있다.

[C] 물리/직접 하지 않는다는 건 동의하는가?

[사회자] 물리/직접 폭력을 디테일하게 규정해보자.

[A] 사람 때리면 폭력이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F] 살수차는? 그걸로 직접적인 타격을 입으면?

[C] 테이저 건도 물리/직접이겠다.

[D] 적대자가 아니라 우리가 쓰는 도구를 가지고 얘기하자.

[E] 화염병은?

[A] 물통은?

[B] 젓가락도 있었다.

[A] 계란은?

[사회자] 물리/직접은 물총 같은 건 애매하다는 것 같은데, "특정 개인의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것"이라고 정의할까? "상당한"이 아니면, 어떤 타격도 안 된다고 할 수도 있고. 법조문 만드는 것과 비슷할 수도 있다. 타격에 대한 정의도 자세해야 한다. 지금 해두면 이걸 가지고 얘기하면 되니까 나중에 편하다. "상당한"이냐, "모든"이냐?

[E] 피나는 건 "상당한" 아닌가?

[B] 경찰의 방패를 내가 막는다고 했을 때, 앞의 경찰들은 다칠 수도 있다. 피나 멍, 골절.

[D] 골절을 위한 노력은 하지 않는 게 가능하다.

[사회자] 여기에서 분류기준을 하나 더한다면, **적극적(의도적)/소극적(비의도적)** 폭력이 추가 가능하다.

"상당한"의 내용은 뭘까? 출혈? 골절? 찰과상? 염좌? 근육계 손상? 모세혈관 파열? 타박상?

[D] 이 정도면 될 듯.

[사회자] 이 이상의 기준에 들어가는 것은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면 된다.

[C] 저 기준에 안 걸리는 폭력은 뭐가 있을까? 뺨을 적당한 세기로 때린다든지?

[사회자] 사람의 신체가 각자 다르기에 나의 적당함이 상대에게는 파괴적일 수 있다.

[D] 병원 진단서가 나오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하자.

[C] 뺨 때리는 것도 물리/직접이라고 하면 이 기준에서는 가능하지 않나?

[사회자] 앞의 예 뒤에 '등'을 붙이자.

[E] '등' 말고 '그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로 하자.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C] 나는 '타인의 신체에 통증을 유발하는 행위'로 정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D] 의도적인 접촉이고 통증을 유발하지만 상대가 위해로 느끼지 않는 행위의 왜곡이 일어날 수가 있어서 자세한 기준이 필요하다. 의도중심이나 결과중심이나의 문제다.

[C] 의도와 결과가 충돌한다면 의도를 중심으로 봐야 한다고 본다.

[D] '신체에 위해를 가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C] '상당한'을 넣으면 저 기준 이하로는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

[사회자] 대신 나머지 내용은 물리/간접에 넣고 금지할 수 있다.

[C] 직접/간접의 기준이 '강도'의 차이가 되는 것인가?

[사회자] 폭력의 강도가 모두에게 일정한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일정하게 구분하기 힘들니, 일단 기준을 느슨하게 짜보는 것이다.

[E] '상당한' 빼지 말자. 빼면 너무 범위가 넓어지니까. 물리/간접의 기준이 나오면 없애도 되겠지만. 일단 물리/간접을 먼저 정해보자.

[사회자] 물리/직접 폭력 사용에 찬성하시는 분? 행해도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없음.)

적어도 이 범주에 들어가는 행동은 혁기원 '내부에서는'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한다. 그런데 연대체에 들어가서도 이 가이드 라인은 내부에서 적용된다.

다음은 물리/간접. 의도 얘기를 먼저 하자. 의도가 있을 경우 물리/간접에 포함시킬까?

[D] 협상 테이블에 나갔다가 실수로 적대자의 노트를 들고 왔어도 물리/간접이 될 것이다.

[사회자] 물리/간접, 의도/비의도 분류들은 섞여서 나타나기에 마련이지만 최대한 분류해보자.

내가 상당한 피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물리/간접이 상당한 피해가 될 가능성이 낮지만 존재한다고 할 때 그 조그만 가능성조차 차단할 것인가, 그 정도는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D] 나는 그걸 정신적 폭력에서 그 행위가 우리에게 효과적인가 아닌가를 놓고 봐야한다고 본다. 감정적인 대처가 우리 활동에 유리하냐 아니냐의 문제를 봐야 한다.

[사회자] 물리/직접은 정신적 폭력을 수반할 가능성이 명백하지만, 물리/간접은 정신적 폭력이 강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생각하며 논의해야 한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A] 점거의 경우는 물리/간접 폭력인가? 건물 점거나 도로 점거나의 차이도 있지 않나?

[C] 우리가 사유재산 등을 점거하면 재산권에 대한 폭력이라 할 수 있는데, 공공의 도로 등에서의 행위는 적대자에 대한 폭력이라고 보기는 힘들 것이다.

[사회자] 물리/직접으로 돌아가서, 신체뿐만 아니라 재산도 포함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것을 짚고 넘어가자.

[B] 경찰의 방패를 빼앗는 건? 그걸 뺏긴 사람은 선임들로부터 아주 강한 물리적/정신적 폭력에 시달린다.

[사회자] 물리적으로 간접이라고 하기도 힘들 것이다. 그래서 '재산'을 물리/직접에 넣을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다.

[A] 직접적인 폭력인 것 같다.

[E] 재산을 경찰의 방패와 동일시해서 논의하면 좋겠다.

[C] 재산에 대한 폭력은 아예 따로 얘기해 보면?

[D] 신체는 직접으로 하고, 재산은 간접으로 넣어서 본격적으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다.

[C] 우리가 물리/직접을 하지 않기로 서로간에 쉽게 동의했다면, 그 이유도 금방 밝혀지지 않을까?

[사회자] 이걸 시간이 많이 걸리는 작업이다. 서로 다른 감수성들을 맞춰가는 시간도 필요하고. 방금 나온 얘기는 좀 더 본질적인 부분. 서로 다른 부분을 맞추라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가이드 라인은 우리 안의 규약이니, 이걸 벗어나는 행위는 혁기원으로서 행한 것이 아니게 될 것이다. 중요한 건 이것은 내부적인 규약이고, 모두의 감수성을 맞추는 수는 없지만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가능하다.

정리를 하면, 신체/재산에 대해서 재산을 물리/간접으로 넘긴다는 데 동의하는가?

(동의했음.)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도 집어넣을까? 비의도적인 부분은?

[C,E] 따로 생각하자. 의도와 결과의 문제도 있으니까.

[사회자] 이걸 실용적인 문제일 수 있다. 우리는 비폭력 쪽으로 정서가 형성되어 있는데 그렇기에 비의도적인 폭력 상황에 대한 이야기가 더 힘들 수도 있다. 그렇게 보면 '뚜렷한 의도를 가지고'를 넣는 게 맞을 수도 있다.

[E] 뚜렷한 의도 구절이 있어야 도망갈 구멍이.....

[B] 노동 의제 연대체에 우리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사측 재산을 파괴하자는 행동을 결의할 수도 있는데 그 때는?

[사회자]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다. '의도'라는 구절을 넣을까?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C] 의도라는 구절을 넣을까 말까 지금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 우리가 물리/직접/의도에 대해 합의했으니 의도 문제는 따로 떼어서 나중에 논의하자.

[D] '뚜렷한 의도'라는 구절도 지우자.

[사회자] 그러면, 물리/간접/의도 의 경우에, 재산을 뺏까?

[D] 근데 어떤 경우, 스크럼 같은 경우는 신체에 대한 물리/간접/의도 폭력이라고 하기 힘들다.

[B] 케바케일 것이다. 채증카메라를 던지는 경우.

[사회자] 우리가 의도를 가지고 행한 비폭력 저항이 합법적이지 않은 경우도 가능하다.

[D] '의도적이지 않은' 재산 손실은 가능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사회자] 채증카메라를 뺏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얘기해 보자. 그게 운동 자체의 이미지를 훼손시킬 수 있다.

[D] 내 눈 앞의 경찰과 적극적으로 싸우는 건 도움이 안 되고, 지휘계통에 대응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고 본다.

[사회자] 그렇게 치면, 재산 손실도 하지 않는다고 해야...

[D] 지양한다 정도? '경우에 따라서'

[B] 경우에 따른다 할 때도 기준은 필요한데....

[사회자] 그 기준은 상황에 따라 의사결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기에 일단 여기서는 가이드를 위한 워딩을 찾아보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B] 채증 자체를 못하게 한다는 의미에서는 카메라 뺏는 행위도 의미가 있다고 본다.

[사회자] 물리/간접/의도 폭력을 정리해보자. 개인의? 재산 손괴? 또, 원칙적으로는 하지 않는다? 원칙에는 예외가 있으니까....

[E] 신체는?

[사회자] 신체를 넣을 것인가?

[D] 신체도 들어가야 하겠다. 신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하자.

[E] 재산은 들어가는 게 맞는데, 신체는 잘 모르겠다.

[B] 혁기원으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재산 손괴는 오케이. 우리에게 대한 폭력도 얘기가 필요하지 않나?

[사회자] 그건 비의도적 영역에서 다룰 수 있겠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C] 가이드라인 세운 것을 자발적으로 지키기를 바라는 건지 아니면 제재가 있는 건지 궁금하다.

[사회자] 우리 행위에 대한 느슨한 그림을 그리고 언제든 변동을 주기 위한, 자발적인 약속이다.

[D] 교회의 전통적인 징벌은....회개의 열매를 보일 때까지 라든가....

[사회자] 계속 정의해 보자. '개인의 재산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것'?

[E] 재산의 파손 정도는 상관없는 건가? 왕창 깨진 것과 스크래치가 나는 것은 차이가 있는가?

[B] '사용할 수 없게 되는 정도'로 하자.

[C] 일단 '상당한' 넣자.

[사회자] '상당한'의 수준을 정해야 한다.

[E] 사용 불능?

[C] 핸드폰 던져서 스크래치 났는데 사용은 가능한 경우? 그럴 땐 '사용불능'은 애매하다. 다른 기준이 필요하다.

[사회자] 중요한 건 '의도적으로' 사용불능을 시키기 위해 재산에 해를 가하는 경우이다. 그러니 의도가 들어갔다는 게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더 강한 기준이 필요하냐는 이야기가 가능하다. '사용에 지장'? 이렇게 되면 더 많은 경우들이 규제가 된다.

[E] 점거 문제가 있다. 적대자의 건물을 점거하는 경우. 그래서 재산을 넣지 말자는 얘기를 한 거다.

[D] 그 건물 사용 권리는 건물주에게만 있는 건 아니라는 점도 있다.

[E] 점거만 봐도 '사용에 지장'은 그런 의미에서 너무 의미가 넓어져서 그 경우의 수를 좁히기 위해 '사용 불능'이라는 말을 한 거다.

[C] 동산과 부동산으로 나누자.

[D] 그거 좋네. 부동산의 경우 땅은 하나님의 것이므로....왜? 안 믿어?

(폭소)

[사회자] 재산을 '동산'으로 하는 것 동의하는가? 그리고 '사용에 상당한 위해'로 가는 것으로?

(동의)

(폭소 계속됨.)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11.12

가이드 라인 잡기 두 번째

[A] 의도치 않은 것 중에 정당방위도 넣어서 얘기했으면. '상당한 위해'는 아닌 거라도 신체에 대한 폭력에 대해서 다뤘으면.

[B] 지난 주에 물리/간접/의도 이지만 신체와 접촉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얘기했나?

[C] 가능성만 얘기했다.

[B] 이를테면 앞에서 에워싸는 것.

[사회자] 중간지대가 있다고 본다. 우리 정서 안에서는 의도적인데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것 이하의 수준에서 행동하는 건 드물다고 할 수 있다. 우리가 주로 후방의 지원 역할을 자주 하니까. 앞에 서더라도 직접 대치하는 경우는 적으니까. 지금은 확률이 낮다고 본다. 물리적으로 상당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인데 물리/직접/의도 폭력이 벌어졌을 경우에는 내 생각엔 정신적인 폭력이 수반되는 경우가 있으니 그것과 묶어서 생각하면 애매한 부분이 존재한다. 사람의 이동권 자체를 제한하는 게 정신적인 폭력일 수 있으니. 하지만 상당한 위해를 가하지는 않고. 한편으로 보면 그건 창조적인 저항의 방식이고. 그러니, 이 틀 이외의 상황은 현장에서 해결하는 게 답이라고 생각된다. 이 중간지대까지 원칙적으로 정해버리면 투쟁 자체가 경직될 위험도 있지 않나 싶다. 상당한 위해를 가하지 않는 수준의 폭력을 의도적으로 가할 만한 정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 하에.

[C] 이 정도로 큰 그림을 잡고 넘어간다고 치면, 현장에서의 상황들을 하나씩 이 가이드라인에 대입하면서 우리 원칙의 유효함을 확인해보면 좋겠다. 그렇게 정하고 일단 넘어가는 게 좋겠다.

[A] 찬성한다.

[사회자] 의도적이지 않은 폭력을 얘기해보고 넘어가자. 누군가의 선제적 폭력에 대한 대응 내지 대항 폭력인 정당방위는? 의도적이지 않은 폭력인가?

[A] 방어본능이라고 본다.

[사회자] 누군가의 폭력에 대해 무대응을 하거나 창조적 비폭력 저항을 한다는 게 가능할까?

[B] 훈련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자] 의도치 않은 폭력의 경계설정이 더 까다로워진다.

[B]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보면, 정당방위라도 반사적 폭력이 자주 나오는 사람은 현장에서 후방으로 보내는 게 맞다고 본다.

[D] 반사적의 폭력의 빈도가 많다는 건?

[B] 의도가 없더라도 마치 언어적 욕설처럼 폭력에 대해 본능적으로 반응하는 것.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E] 의도하지 않았어도, 본능적으로 나오는 폭력은 정당방위라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B] 본인만의 자제만으로 부족할 수도 있으니,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자] 말로 풀어보자면, '(의사소통 구조에 의해 도출된) 조직의 결정에 따르도록 한다.' 정도로?

[B] '성도의 권면'...'교우들'...

[사회자] 투쟁 과정 중에 혁기원의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과 아닌 것에 대한 구분짓기와 태도 같은 것이 중요해진다. 가이드 라인에 어긋나는 행위에 대해 모종의 처분을 내렸는데 혁기원을 벗어나서 행동한다면 어떻게 할까?

[A] 의사 결정 시에 반복적 정당방위의 당사자도 있었으면.

[사회자] 의도치 않은 폭력에 대해서 또 다른 케이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까? 나는 교우의 권면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창조적 비폭력 저항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도 이런 측면에 대한 가이드 라인을 최소로 잡고 유연함을 부여하는 게 맞다고 본다. 그러므로 이 정도의 명시만 하고 넘어갔으면. 정신/직접/의도 에 대해서 얘기해 보자. 뭐가 있을까?

[A] 언어 폭력, 성폭력

[B] 성폭력도 가능할 듯.

[F] 침뱉기, 모욕감 유발

[B] 숙제 내기. (뭐래...)

[A]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 통성기도?

[E] 대적기도?

[사회자] 축귀...

[D] 고성방가?

[B] 티꺼운 표정?

[E] 위해를 주리라는 압박을 주는 기운.

[B] 안수기도....

[F] 나이주의.

[A] 반말.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C] 저...저..전도?

[B] 세력과사?

[C] 인격을 비방하는 플래카드.

[E] 신상공개. 이게 전략적으로 통하긴 했는데...

[D] 키보드 배틀.

[B] 나올만한 건 다 나온 듯?

[D] 조리돌림?

[사회자] 이 중에서 애매하다 싶은...

[D] 전도요.

[사회자] 폭력이라고 보기에 힘든, 전략적 비폭력 저항일 수 있겠다 싶은 경우를 골라서 제거해 보자.

[B] 제안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 가이드 라인을 잡는 이유를 정하면 좋겠다. "적대자도 구원받기를 원한다, 당신들과 법정소송까지 가기를 원치 않는다." 정도의.

[사회자] 여기에 써놓은 "적대자의 변화"가 사실은 그 원칙이다. 적대자의 회개와 전향 등인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일반적으로는 언어폭력이 도움이 안 된다.

[B] 혁기원 내부가 아니라면 그런 것들이 투쟁방식이 될 수 있지 않나?

[사회자] 외부에서 그런 방식을 택한다면 우리 내부에서 우리의 대응방침과 태도를 정할 수 있다.

[A] 종교행위는 빼면 좋겠다.

[B] 통성기도도 상대를 구원하거나 적으로 돌릴 수 있는 기도로 나눌 수 있다.

[A] 일부만 제한하자.

[B] 우리끼리야 가능한 행위인데, 대외적 상황에서는 지양하는 게 어떨까?

[E] 어떤 태도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 아닌가?

[사회자] 적대자를 악한 세력으로 규정될 가능성이 있다.

[B] 대적 기도가 그 사람으로 하여금 듣게 할 의도인 경우는 하지 않는다. 상대방을 직접 향하는 방식은 하지 않는다고 하자.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C] 일반적인 통성기도의 경우, 오픈된 장소는 오케이인가?

[B] 당사자가 괜찮다면 뭐.

[E]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도록 하자.

[사회자] 다 동의하는가? 아니면 다른 의견?

[C] 일단 동의하고, 내 감성은, 비기독교적 투쟁 당사자나 적대자가 있는 공간에서는 통성기도를 하지 않는 것인데 다른 분들은 그런 상황에서의 통성기도가 괜찮으신건가?

[A] 나는 통성기도 등 종교행위가 필요하다고 본다.

[B] 적대자를 직접 겨냥한 방식은 하지 말자는 거다.

[사회자] 방언은? 전도는?

[B] 전도는 적대자의 변화가 전도 아닌가?

[E] 어떤 전도인가의 문제.

[B] 노방전도는 계속 해왔다.

[사회자] 현재 정서상 전도는 가능하다고 하자. 몰라 그냥 뺄, 뺄. 고성방가는?

[일동] 안 된다.

[B] 지역 주민과의 관계 문제가 생김.

[E] 지역 정서를 살피며 하자.

[B] 의도가 중요하겠다.

[사회자] 고성방가에서 시끄럽게 할 의도가 있는 것은 하지 않는 걸로.

[E] 자해도 물리적 폭력인가?

[C] 그 때 논의한 것은 타인에 대한 것이었음. 상대방에게 정신적 폭력을 가하는 의도라면 문제.

[사회자] 가이드 라인으로 정한 워딩으로만 보면 자해도 폭력에 해당.

(모욕감 유발도 폭력으로 정의했음.)

[사회자] 성폭력도 당연히 폭력으로.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신상공개(키배, 조리돌림)는?

[C] 여기에서의 신상공개를 정의한다면?

[E]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공개라면 문제.

[B] 내부도 조리돌림이 되므로 문제.

[사회자] 지난 투쟁 때 적대자의 주소와 전화번호가 공개됐는데, 그게 전략적이라면 괜찮은가?

[B] 신상공개를 제한하되, 대중적으로 공개하지 않는다는 정도면 될 듯. 용역의 경우도 공개하지 않고 대응 가능. 학교 학적과에 전화해서 학교의 징계를 유도하는 것.

[사회자] 신상공개 자체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는 아닌 것인가? 공개하되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정도?

[D] 어디까지가 제한적인 것인가가 중요.

[B] 공식적 징계는 가능하도록, 신상공개를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C] 신상을 알게 된 개인이 신상을 알고 있음만 밝혀도 우리끼리 대처 논의가 가능.

[B] 사적 폭력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지 않는 걸로 하자.

[C] (용역에 대한) 역채증은?

[E] 찍고 지우는 건? 그건 필요할 수 있으니.

[B] 전략적으로 정보 축적을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본다. 사적 폭력 도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역채증일 경우도 제한적으로 공개하는 방식.

[D] 공개 범위 정하자.

[E] 최초 정보 보유자가 정보 내용은 발설하지 않고 활용 방법만 논의하는 것으로.

[A] 용역이 왔다거나 급박한 상황이 벌어진 경우에는? 알려야 하는데? 얼굴 가려야 하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자.

[D] 대중이 아니라 연대 단체 단위의...지도부에만 공유하는?

[사회자] 원칙적으로는 최초 입수자만 보유, 상황에 따라서 논의를 거친 후 지도부에만 공유하는 것으로.

[B] 급박할 때는 얼굴만 가리는 건 어떨까?

[E] 사진이 있어야 하나?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B] 이미지가 있는 것과 없는 건 효과가 다르다. 그런 경우에도 공개를 위해 **모자이크 처리**를 하자.

[사회자] 키보드 배틀? 이건 개인적인 측면이 강해서...

[A] 혁기원 홈페이지 들어와서 댓글 공격할 경우는?

[C] 키배의 경우는 언어폭력의 원칙 적용할 때와 비슷해지지 않나 싶다. 따로 범주로 만들지는 말자.

[사회자] 조리돌림은?

[E] 신상공개만 피하면 행위는 공개해도 되지 않나?

[D] 팩트 지적에 조롱이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사회자] 트위터에서 알티만 한 걸로도 조리돌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다. 맥락과 상황에 따라 조리돌림이 되기도 안 되기도 한다. 사실만 적시해도 조리돌림이 되니까. 특히 SNS 상에서. 이런 것도 가능하다. 적대자의 말이나 행동을 공유할 때 우리의 태도에 대한 경계가 될 수는 있다. 일단 조리돌림은 폭력으로 집어넣는 걸로.

[A] 간접으로 넣었으면. 너무 애매하다.

[사회자] 다들 동의하는지?

[C] 그 대상이 직접적으로 인지하는지 아닌지가 중요한 건 아니게 되니까 동의.

[사회자] 세력과는 어떻게?

[E] 연대 같은 것?

[사회자] 그건 아니다.

[B] 연대 대열이 적대자 본거지 앞에 갈 때.

[D] 나는 그런 행위에 의문이 들긴 했다.

[사회자] 그게 하나의 세력과사일 수도.

[B] 다른 방식도 있었을텐데.

[사회자] 세력과는 우리 측 인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경우에 가능한 건데, 직접적으로 대면할 경우 생기는 심리적 압박이 있다. 어쩌면 이건 둘러싸는 행위 같은 이동권 제한과 비슷한 면이 있다. 애매하다. 행위의 왜곡에 들어갈 수도 있다. 그저 사람이 많이 와서 자연스레 모인 건데, 그게 폭력이 될 수도 있으니.

[C] 우리는 의도적인 폭력을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의도가 없었는데 우연히 사람이 많은 경우는 나중에 얘기하자.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사회자] 세력 과시를 뺄까? 넣을까?

[B] 침묵시위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사회자] 판단이 애매할 경우는 일단 제외를 했다. 느슨한 최소의 규약만 두는 거니까.

[B] 세력과시 관련 문제는 **고성, 모욕의 문제**일 수 있다.

[C] 위압감을 느끼게 할 의도를 갖고 있는가 아닌가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나는 의도적인 거라면 위압감을 주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면 안된다고 본다.

[B] 그게 문제라면 세력과시에서 벌어질 문제는 고성, 모욕으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사람이 많이 모인 것을 막을 순 없으니.

[사회자] 세력과시는 제외하겠다.

[A] 언어폭력에 협박도 넣자.

[사회자] 다음 주에 얘기해 볼 부분이 정신적/간접적/의도적 폭력인데, 적대자의 비리를 카드로 해서 전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단순히 협박이라고 보기 힘든 부분이 있다. 협상이라 볼 수도 있고. 다음 주에 이 부분을 포함해서 얘기해 보자. 또한 혁기원으로서 하지는 않았는데, 가이드 라인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혁기원 멤버십을 가진 인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한 것인지도 얘기해 보자.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11.19

가이드 라인 잡기 세번째

[사회자] 행위의 왜곡은 비의도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다. 이걸 이따가 다뤄보자. 시간이 되면 혁기원으로서 하지는 않았는데, 가이드 라인에 벗어나는 행동을 하는 혁기원 멤버십을 가진 인물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한 것인지도 얘기해 보자. 정신/간접/의도 폭력은? 일단 조리돌림 있고.

[A] 소문내는 것.

[B] 사실 여부에 따라 다르지 않나?

[C] 사실을 소문을 낸다면 조리돌림이 되지 않을까?

[사회자] 또 뭐가 있을까? 지난 주에 얘기한 것. 협박인가 협상인가의 문제.

[C] 상대방이 좋아하는 것을 공격하는 것.

[사회자] 덕심공격은 상대방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 건 아니니까 간접적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다.

[A] 그 사람이 가치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공격으로 볼 수 있다.

[사회자] 어떤 가치를 공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의 기도회도 그런 맥락이고. 다른 건 뭐가 있을까? 보통 언어에 관련된 듯. 이제 골라내 봅시다. 덕심 공격은?

*가면 갈수록 규정되는 목록이 줄어드는 건, 우리가 이전에 논의했던 많은 것들이 이미 다양한 범주에 모두 소속되는 면이 있어서 아닌가 싶음. 물리/직접 이면서도 정신/간접 에 속하는 등.

[C] 본인에 대한 인신공격으로만 이어지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을까? 돈 자체에 대한 공격과 돈을 사랑하는 적대자에 대한 공격의 차이가 있다.

[사회자] 적대자의 인격에 대한 공격은 지양하자는 뜻이 되겠다.

[C] 인격에 대한 공격은 이미 정신/직접 에 넣었으니,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하지 않을까?

[B] 덕심공격에는 소문내기도 포함되지 않을까?

[사회자] 인격에 대한 직접적인 공격을 제한사항으로 두고 덕심공격을 폭력으로 포함시키는 게 어떨까 싶다.

소문내기는 어떨까? 신상공개를 하나의 소문내기로 봤었다. 적대자의 행위를 놓고 우리가 가진 정보를 덧붙여 전파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 행동을 한 건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런거야.) 신상 보유를 제한적으로 놓은 상황에서의 신상 공개를 폭력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와 관계 없는 인격에 관련된 소문내기라면 조리돌림과 마녀사냥이 되는 경우가 많을 듯. 소문내기와 조리돌림은 인격에 대한 공격이 될 수 있으므로 하지 않는다고 정리하면 될 듯.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C] 이런 식으로 조건을 달게 되면....애매하지 않나?

[사회자] 만약 누군가 소문을 내고 싶다 한다면 이 가이드 라인을 가지고 판단할 수 있다.

[C] 케바케로? 원칙적으로는 금지?

[사회자] 그렇다. 이 가이드 라인이 하나의 자정작용을 가능케 하는 기준이 될 것이다.

협박과 협상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

[C] 협박과 협상을 나누는 기준을 세워보고, 협박 금지 협상은 가능케 하는 걸로 하자.

[사회자] 모든 현장은 적대자가 갖는 약점이 있을 것이다. 설령 그 쪽이 약점을 갖고 있지 않아도 협상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협상이라는 카테고리가 좀 더 넓지 않나 싶다. 협박과 협상을 나누는 기준을 세워보자. 약점이 있다면 활용은 불가피하다. 트레이닝에서는 합법/불법을 기준으로 봤다.

[B] 형법에서는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기 위하여 생명, 신체, 자유, 명예, 재산 등에 대하여 해를 가할 것을 통보하는 행위를 협박이라고 규정한다.

[사회자] 적대자 자신에 대한, **나(우리) 측의 합법적인 틀 안에서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통보하고 대화를 시도하는 것은 협상이 될 것이다.** 합법적인 틀 안에서의 협상에서 결렬되어 그 이상의 수준으로 넘어가야 할 경우, 협상을 포기하고 다른 수단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협상도 제한적인 전략일 수 있다. 아무 때나 가능한 것이 아니니까.

[A] 해를 가하지 않는 방식이라면 협상이 되는 건가?

[사회자] 합법적인 테두리 내에서의 조치로서 그 사람 입장에서는 해가 되더라도 그것을 가하겠다는 하면 협상이 될 것이다. 다른 기준은 뭐가 있을까?

[C] 합법/불법 그 이상이 뭐가 있을까?

[B] 자력구제라는 용어를 사용하면? 위해를 가할 것을 통보한다는 의미?

[사회자] 협상에 대해서만 명확하게 정의하면 편하지 않을까? 허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면. **자력구제를 풀어서 얘기하면, 적대자가 손해는 보겠지만 수동적인 해를 당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을 주는 방식이라면?**

[B] 상대방의 주체성을 존중하는?

[사회자] 의사의 자유를 박탈하면 협박이 되지 않을까. 적대자의 주체적 결정을 방해하는 것.

[C] 주체성을 침해한다는 게, 이를테면 건물주가 불륜을 저지르는 장면을 약점 삼아서 가족에게 알리겠다고 한다면? 선택은 니가 하라고 한다면? 실제로는 선택의 여지가 없지 않나?

[사회자] **약점의 범위를 설정하면?**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B] 적대자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한 결정의 가능성을 존중한다 혹은 유도한다 정도면 어떨까? 경우에 따라 판단할 수 있도록 열린 조향으로 두면?

[사회자] 그것도 좋고, 우리가 투쟁하는 사안에 대한 약점만 사용하는 것으로 제한하는 것은?

[B] 나는 약점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하는 소극적인 정의를 했으면.

[사회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D] 약점 활용도 약점이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뭐.

[C] 이런 방법을 사용한다고 가정한다면 약점을 캐고 다니거나 약점을 잡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게 된다.

[사회자] 그런 것들이 폭력적이냐 아니냐 논의해야 할 지점이 생긴다.

[B] 우리가 역공을 당할 수도 있는 문제다.

[사회자] 나는 제한했으면 좋겠다. 그래야 전략적으로만 봐도 위험성이 줄어들지 않을까. 특히 "기독교"라는 정체성을 가진 경우.

일단 협박은 안되는 걸로? - 동의.

[C] 협박은 직접적 폭력 아닐까?

[B] 협박은 직접, 약점캐기는 간접?

(동의)

[사회자] 남은 건 '의도하지 않은 폭력' 이야기다. 다음주까지 하게 되면 뒷풀이 느낌으로 가자.

[C] 지난 주 제안했던 건데 케이스 적용 해보자.

[사회자] 그러면 다음주라도 케이스 적용까지 해보자.

의도하지 않은 폭력의 경우 어떻게 할까? 행위의 왜곡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

[C] 조심하자는 정도밖에는 말 못하지 않나?

[B] 사건이 일어났을 때의 문제가 있겠다. 사과한다든지.

[사회자] 행위의 왜곡과 연결해서 이야기하자면 우리는 비폭력적으로 했는데 저쪽에서 폭력으로 느낀 경우.

[B] 그건 너무 애매하다. 직접적인 폭력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하면 어떨까?

[사회자] 아니면 우리가 폭력이라고 규정한, 가이드 라인 안에 들어가는 행위의 경우로 제한하면 어떨까?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C] 약점잡기는 정신/간접 으로 났는데, 상대방이 약점잡기로 오해했을 경우는 어떻게 할까? 직접적 폭력으로 제한할 경우는 그 경우에 대응하지 않아도 되는데.

[사회자] 우리가 폭력으로 규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로 제한하는 건 어떨까? 아니면 ①**그 쪽에서 폭력으로 느낀 행위에 대해서 우리 가이드 라인에 걸리는 행위 (폭력)가 아니라면**, 우리의 상황을 설명해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나서 사과하는 식으로 가면 어떨까?

[C] 점거의 경우, 적대자가 폭력으로 느낀다면?

[사회자] 우리의 상황과 의도와 동기를 설명하는 정도로 충분하지 않을까?

[C] 굳이 사과하는 것으로 제한하지 않고? 성의있는 대응 정도로?

[사회자] 그렇다. 대처 방법이나 태도의 디테일을 정하고 갈까? 상황에 맞게 대처하는 것으로 마무리할까?

[C] 일단 느슨하게라도 얘기를 하고 넘어가자.

[사회자] 우리가 할 수 있는 대처가 뭐가 있을까?

[B] 건물 점거의 경우, 그것에 대해 사과할 필요는 없어도, 물리/직접 폭력이 벌어진다면 사과할 필요가 있겠다.

[사회자] 배상과 사과?

[B] 배상을 제외하자. 사과만 넣자.

[C] 행위자가 자발적으로 보상하더라도 혁기원 차원에서 보상할 필요는 없을 듯.

[사회자] 단체 차원에서는? 우리가 단체적으로 행동했을 때 단체에 대해 클레임을 걸 수 있으니. 개인의 경우야 개인이 대응하면 되겠지만. 개인에는 개인, 단체에는 단체 차원으로 대응하면 어떨까? 우리가 인지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에게 알려지는 경우일테니. 그 그분 자체는 큰 의미가 없을 듯도 하다. 사과를 하고 넘어가는 정도라면.

[C] 현장에서 몸을 움직이다가 실수로 쳤을 때 일반적으로는 친 사람이 사과를 할텐데, 혁기원 차원에서는 사과가 필요할까?

[사회자] 보통 필요없지 않나?

[C] 일단 행위 주체의 사과는 필요하니 그것을 명시해두는 건 필요할 것 같다. 개인이 한 행위를 단체가 사과할 필요가 있을까?

[사회자] 없을 것 같다.

[C] **행위의 왜곡이란 게, ②우리가 의도하지 않았지만 가이드 라인 내의 결과가 나온 경우가 있을 수 있고, ③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느낀 경우가 있을 수 있지 않나?** 이럴 땐 어떻게 할까?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사회자] 아니면 가이드 라인 바깥의 결과였는데도 폭력으로 느꼈다면?

[C] 첫번째는 명백하겠지만 두 번째, 세 번째의 경우라면?

[사회자] "상대방이 느낀 폭력"에 대해서는 어떤 경우에는 무시하는 게 필요하겠다.

[B] 적극적인 대응도 필요하다고 본다.

[C] 지금 제시된 경우들에 대한 대응방법을 지정해놔야 하지 않을까?

[사회자] 첫번째는 사과하고, 세번째는 무시하는 쪽으로, 두번째 경우는 적극적 변호 정도가 최선 아닐까 싶다.

[사회자] 의도치 않은 폭력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정하자.

단체에 속했지만 단체로서 행동하지는 않았지만 우리 안의 가이드 라인을 어겼을 경우에 대해 얘기해보자.

[B] 일단 그 사실을 통보하자.

[C] 지금까지의 얘기는 우리 안에서 행동할 때의 규칙이니, '사람들이 당신을 혁기원 사람으로 알고 있으니, 당신의 행동이 혁기원에서 용인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해도 될까?

[사회자] 우리가 그의 행위를 지적했을 때, 그는 혁기원으로서 하지 않았다고 얘기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도 논의 주제가 된다.

[C] 이런 규칙들을 정하게 된다면 우리의 흐릿하고 낮은 경계가 비교적 더 선명해지고 높아지는 것인가?

[B] 약간은 그렇게 되겠지만, 그래서 **권면**이라는 방식을 택하자고 하는 것이다.

[C] 결국은, 투쟁을 하거나 현장에 있는 것이 아닌 시간에도 혁기원으로서의 정체성을 의식하며 살게 되는 것 아닐까? **권면 같은 방식은 혁기원으로서 활동하며 가이드 라인을 어겼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맞다고 본다.**

[사회자] 이 논의 자체를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 담벼락을 높인다고 느껴진다면. 가이드 라인을 어긋났을 때 조차도 당사자는 변론할 여지가 있고, 가이드 라인이 바뀔 수도 있다는 유연함이 우리에게도 필요한데, 어떤 조치를 취하자는 결정 자체가 담벼락을 높이는 행위가 될 수가 있다.

[A] 벌어진 사건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다.

[사회자] 이 부분은 일단 논의하거나 결정하지 않고 넘어가는 걸로 합시다.

[B] 지금까지 나온 이야기들을 문서화 합시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11.26

(지금까지 세운 가이드 라인 설명)

[사회자] 오늘은 가이드 라인에 케이스를 대입해보며 가이드 라인을 점검해 봅시다.

[A] 농성장에 건물주가 나타났다! 농성장에 건물주, 공사관련 책임자가 나타났다 때 당사자가 마주앉아 얘기하는 모습을 보고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에 대한 대처 문제가 있다.

[사회자] 적대자의 등장에는 여러 경우의 수가 있겠다. 협박, 협상, 위협 (무력적인)...또 어떤 경우가 있을까?

[A] 동태를 살피는 것?

[사회자] 이 정도?

[B] 거짓말도 있었다. 속이는 경우

[C] 용역은 적대자가 아닌 걸로 지난 시간 정리했었나?

[사회자] 그렇다.

[C] 도구적인?

[사회자] 그렇다.

[C] 공격의 의사를 가지고 오는 경우도 있지 않나?

[A] 내가 얘기한 케이스는 "상급 보스"가 왔을 때의 문제. 어떻게 할까의 고민이다.

[C] 정확하게 보자면 정신공격을 위해?

[A] 정찰을 위해서 오는 경우가 더 많다고 본다.

[B] 회유하러 오는 경우도 있었다.

[D] 지금 논의가 적대자가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논의인가?

[사회자] 적대자가 의도를 가지고 접근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문제다. 지금 말한 의도들을 우리가 알아챘을 때. 이 상황 자체가 투쟁의 분수령이 될 만한 중요한 국면일테니, 의도들을 기준으로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겠다. 일단 긍정적인 의도는 뭘까? 협상....회유도 긍정적일까?

[E] 상황이 조금씩 다르니 완벽한 분류는 어려울 것 같다. 겹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사회자] 그래도 최대한 분류해보자.

[B] 회유를 부정적으로 보는 게, 협상중일때는 부정적으로 작용하기도 한다. 갑의 입장으로 접근하게 되니까.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사회자] 침탈, 위협, 협박은 부정적일 것이고.

[B] 협상도 경우에 따라 다른 것 같다. 경찰이 협상자일 때도 있고, 협상 자체가 거짓말인 경우도 있었다. 건물주 외의 사람이 협상자로 오면 부정적인 결과를 낸 경우가 많았다.

[C] 그럴 경우는 진짜 의도가 협상이 아니었던 건 아닌가?

[사회자] 그러면 속임수라는 경우가 있을텐데, 그래도 애매한 건 마찬가지다.

[F] 과거의 경우를 떠올려보자.

[사회자] 하나씩 보자. 협박.

[A] 그럴 경우 보통 간접적인 협박 아닌가? 중개자를 통해서. 용역이나.

[사회자] 그 경우는 위협쪽으로 들어가지 않나? 그러면 위협과 협박이 비슷해지는 건가? 위협과 협박을 위협으로 통일하자. 용역을 데리고 오는 혼자 오는 비슷할 듯. 그러면 협상부터 보자. 협상한다?

[D] 들어는 드릴게?

[B] 실제로 협상하러 왔는데 협박과 협상, 회유가 겹쳐지는 경우였다. 건물주 친구, 건물, 경찰이 왔는데 각자의 입장이 너무 달랐다.

[사회자] 겹쳐있는 경우는 사실..판단하기가...

[F] 협상의 경우 우리가 주체는 보통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는 지지자로서 서 있거나 정보를 공유하면서 자료를 제공하는 정도의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사회자]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결정)? 디테일한 접근은 필요하지만 초점은 분명하게 가져가야 한다. 당사자의 태도에 따라 행동하는 건 맞지만 우리의 가이드라인과 당사자의 태도가 어긋날때가 문제가 될 거다. 그럴 때의 우리의 태도와 행동 방침을 정하는 거다.

[C] 도덕적인 결정인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접근하자고 설득할 수 있겠다.

[F] 우리는 주로 도덕적 정당성을 가지고 싸우는 건데, 폭력을 쓰면 장기적인 투쟁에 불리할 거다. 그러니 당사자와 적대자 사이에서 완충지대 역할을 해야할 것 같다.

[사회자] (당사자가) 비폭력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 역할을 한다? 이렇게 되는 건가?

[A] 당사자가 비폭력을 택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원하는 정도만 하면 되고.

[C] 비폭력에 대한 교감을 서로 하는 건 필요하다고 본다.

[사회자] 완충지대 역할을 자청했는데 당사자가 끝까지 폭력적 태도를 고수하겠다면 어떻게 할까?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F] 어쩔 수 없이 한 발 빼는 게 필요하지 않나?

[D] 바로 빠지지 말고 세 번 정도로 횡수를 뒤서 기준을 삼는다든지.

(드립 침)

[사회자] 협상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위협하러 왔을 때는?

[A] 먹을 것을 준다? (쓰지 마 쓰지 마)

[D] 몸을 크게 한다 (ㅋㅋㅋ)

(드립 침)

[B] 내쫓으면 되지 않나?

[A] 비폭력적이기 힘들다.

[D] 헐리우드 액션 ㅋㅋㅋ

(드립이지만 채택됨.)

[B] 욕설을 할 때 귀를 막으면?

[E] 침탈이든 협박이든 일단 1차적으로 쉽게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 표명은 필요할 듯.

[사회자] 침탈의 경우도 그렇고, 적대자가 농성장이나 당사자에 해를 입히거나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방어하는 수준 (스크럼 등등), 그들의 행동을 고착시키는 정도의 수준에서 막아야 할 듯.

[F] 기도나 찬양도 하나의 방법이 될 듯.

[사회자] 위협이나 침탈의 경우, 그들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저지하는 수준의 방법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닐까? 우리가 공격하기는 까다로우니. 아주 창조적인 비폭력적 공격이 가능하다면 좋겠지만. 맞불기도와 찬양으로 한다면.

[E] 종교적 상징이 우리의 정체성이기는 한데, 항상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된다. 폭력적으로 다가갈 수도 있으니. 종교적 저주처럼 보여지지 않는 방향으로.

[F] 퍼포먼스의 일종으로 하자는 것이다.

[A] 그렇다 해도 적대자를 직접 향하지 않는 방식으로 하자는 이야기를 지난 번에 했다.

[F] 방어적 몸싸움은?

[사회자] 가이드 라인에 벗어나지 않으면 가능하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C] 할리우드 액션은 하기로 하는 건가?

[E] 개인의 판단에 따라.

[사회자] 가능은 할 것이다.

[C] 각자의 판단에 따라 하는 거라면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을까?

[사회자] 가능하다 정도가 괜찮나?

[A] 금하지는 않는다 정도?

[사회자] 다른 분들은? 명시하자는 쪽?

[A] 굳이 명시될 필요는 없을 듯.

[C] 내 의도는, 할리우드 액션이 긍정적이라면 괜찮지만 내 감성으로는 그리 긍정적인 것 같지가 않아서.

[E] 아예 다른 범주에서 다루면 어떨까?

[사회자] 거수로 의사를 확인해 보자. (든 사람 안 든 사람 등등 다양함.) 그러면 할리우드 액션은 알아서들 하시라. 그 자체가 가이드 라인에 벗어나지는 않음.

다음은 경찰의 의도를 가지고 농성장에 왔을 때.

[D] 보여준다.

[사회자] 보여주면 안되지!

[E] 경찰하러 온 사람은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는 방법은?

[사회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고 하면 농성장이나 당사자에 대한 정보를 숨기는?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지만 굳이 드러낼 필요 없는 정보들을 일부러 드러내지 않는 쪽으로. 적극적으로는 협상 테이블로 유도하는 방법. 다른 의견 있는지?

[E]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이자고 얘기했던 이유는 그렇게 적대자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으니까, 그 기회를 활용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다.

[F] 비슷한 맥락인데, 경찰을 왔을 때 그 사실을 폭로하고 우리 안에서 공유하는 게 중요하겠다. 그 사람들이 다시 오기 어렵게 만드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A] 그게 필요하긴 한데, 그러다보면 저 쪽에서도 경찰의 방법이 더 정교해지지 않을까? 경찰을 더 강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도 있으니.

[C] 거짓정보를 풀까?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일동] 그럴 필요까지는 없을 듯.

[E] 침탈에 불법적/합법적 침탈이 있을 것이다. 합법적인 침탈일 경우가 고민이다.

[A] 영장을 요구한다.

[사회자] 까다로운게, 공권력이 불법적이거나 용역들이 합법적 집행을 할 때 등 상황이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다. 경찰이든 용역이든 불법적/합법적일 경우를 생각해보는 건 중요하겠다.

[B] 불법인데 합법으로 가장해서 집행하는 경우도 있었다.

[사회자] 이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다. 농성장을 세우는 것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붙이고 그에 대해 불법적으로 강제력을 발휘하는 부분도 있고.

[E] 그들이 우리의 불법을 주장하며 강제력을 발휘할 때 우리는 어디까지 저항할 수 있는 것인지? 이를테면 천막을 거두려 할 때.

심정적으로 의미있는 방어를 하는 방식은 어떨까? 지금 당장 패배하게 될 지라도 다음 투쟁을 위한 포석으로 삼는.

[A] 그 전에 물론 투쟁 당사자와 이야기를 해놔야 할 것이다.

[C] 사전에 당사자와 꾸준히 교감하는 게 중요하겠고.

[B] 보통 당사자가 자신이 취할 태도를 통보하는 경우가 많다.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는 특히 더 그렇게 한다.

[사회자] 그러면 굳이 불법적/합법적을 하나씩 판단해서 행동하는 건 어려우니, 우리가 가이드 라인 안에서 의논한 후 할 수 있는 선에서 대처하는 식?

[E] 이번에 지게 되더라도 끝까지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A] 천막이라면 빼앗길 경우 매우 불리해지기 때문에 불법일지라도 지켜내는 게 필요하다.

[사회자] 그러면, 침탈과 위협의 경우에 최대한 비폭력 저항을 한다면 정리하겠다.

[F] 불법과 합법 자체가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을 것 같다. 우리가 비폭력적 가이드 라인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듯.

[사회자] 하지만 상황을 분류해서 생각하는 건 중요하다. 합법과 불법을 판단해 놓아야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늘어나기도 하니까. 어찌됐든, 차후 상황을 위한 포석을 마련하는 의미에서 최대한 저항하는 건 중요할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정도인 듯.

다음으로 넘어가서, 회유하러 왔을 때는 어떻게 할까?

[C] 일단 회유 당하지는 않는다. 얘기하다보면 협상의 경우와 유사해질 수 있지 않을까?

[E] 대화할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사회자] 협상하고 비슷한 조치를 취한다?

[A] 협상으로 갈 수 있게 유도. 그걸 우리가 할 수 있나?

[사회자] 다른 의견?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 케이스를 봅시다.

[D] 농성장 주변의 주민들이 농성장에 (이를테면 소음문제로) 불편을 호소할 때 어떻게 할까?

[C] 예를 들어, 적대자의 변화를 원한다고 가정할 때, 주민들이 호의적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있었나?

[사회자] 불가능하지 않고 없지는 않은데, 항의하는 사람들 보다는 지나가는 주민들 정도는 꽤 있다.

[D] 일단 사과를 한다?

(기록함.)

[사회자] 무시? (일단 적음.) 따져보면 공연 등등의 이런 상황이 일종의 비의도적 폭력이 되는 거다.

[C] 무시한다기보다 사과와 적극적 변호를 병행하는 정도가 어떨까 싶다. 주변인들을 적으로 둘 필요는 없으니까.

[사회자] 이 케이스는 행위의 왜곡에 해당하는 케이스가 될 것 같다. 이 외의 다른 의견 없는지?

(먹을 것을 준다. 기록.)

[F] 환대

[D] 조롱이 될 수 있지 않나?

[일동] 조심스러운 태도로 환대하면 되지 않을까?

[F] (주민들의 항의를) 들어준다.

[C] 그래서 '무시'를 지우기를 제안한다.

[D] 무시가 필요할 때가 있다. 취객이 주사를 부릴 때는 무시가 필요하기도 하고.

[B] 투쟁 당사자나 연대단위의 신상정보가 털렸을 경우

[D] 고소해야하지 않나?

[A] 법적 대응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D] 탄원?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A] 하느님께?

[C] 저 상황을 협상의 카드로 사용할 수 있을까?

[D] 법적 대응 후 취하를 하는 식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E] 신상이 어떤 방식으로 털리나?

[A] 투쟁에 대한 연대와 참여가 다른 곳에 알려지는 식의 경우.

[C] 신상누출의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도덕적 우위를 점하는 방식으로 대처할 수도 있겠다.

[F] 신상 누출에 대한 각오도 필요할 거다.

[C] 본인이 위험해질 수 있는 선을 인식하고 안전지대 안에서 활동하는 것도 필요할 듯. 위험해질 수 있는 사람은 노출이 덜 될 수 있게 배려하는 것도 필요하다.

[D] 예방만으로는 불충분하지 않나?

[사회자] 그래서 구분해서 기록했음.

[D] 누가 신상을 터는지는 알아놓아야 하지 않나? 그래야 법적 대응 등 여러 조치가 가능하고.

[E] 당연한 거지만 공동대응을 한다는 것도 필요.

[A] 알아 둔 다음에 할 수 있는 다음 조치가 있다면 좋겠지만...

[사회자] 가이드 라인에 의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사실 규탄 정도다.

다음 케이스를 봅시다.

[C] 경찰이나 용역이 채증을 시도할 때.

[사회자] 시도할 때 당했을 때?

[C] 둘 다. 근데 용역은 왜 채증하는 건가?

[A] 경찰에 증거로 넘길수도 있고, 우리의 폭력적인 대처의 증거로 삼을 수도 있고.

[사회자] 그냥 위협적인 맞채증일 수도 있고.

채증을 시도할 때는 어떻게 할까?

[C] 채증의 권한이나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있나?

[A] 초상권 같은 것?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C] 우리는 그걸 벗어날 각오를 하고 찍는 건가?

[A] 그렇다고 볼 수는 있다.

[사회자] 우리가 채증을 하고 필요할 때는 모자이크 처리와 제한적 공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법적 문제를 피할 수 있겠다. 하지만 우리가 반대로 채증을 당할 때는 어떻게 할까?

[C] 상대방의 채증 시도를 막을 만한 당위는 없지 않나? 우리도 채증을 하면서 저쪽도 하지 말라고 할 수는 없지 않나? 우리가 채증을 하고 안하고에 따라 상황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

[D] 채증 시도의 기미가 보이면....얼굴을 가린다?

[C] 지난 번에는 카메라를 부수지는 않고 뺏은 다음에 상황이 끝나면 돌려주는 식의 대처를 얘기했었다.

[E] 이런 상황에서 도움을 얻을 수 있는 자문단을 확보해 놓는 게 좋을 것 같다.

[A] 키 큰 사람이 카메라 앞에 최대한 근접해서 선다든가.

[C] 채증카메라가 들어오면 그 순간에는 책잡힐 일을 하지 않는다든가.

[사회자] 그런 제약 효과를 노리고 채증하는 것도 있다.

더 없으면 채증 당한 이후의 경우로 넘어가자.

[D] 법률 자문도 채증 시도에 대해서도 가능하니 거기에도 기록해달라.

[C] (채증 당했다면) 지워달라는 요구.

[사회자] 채증했다는 것을 확인하겠다고 요구할 수는 있겠다.

[D] 우리가 둘러싸서 지워달라는 요구를 한 경우도 있었는데, 폭력적일 수도 있겠다 싶었다.

[A] 지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겠다.

[C] 둘러싸는 건 우리 가이드 라인에 벗어나지 않는 건가?

[D] 벗어난다고 보기는 힘들다.

[A] 현장에서 둘러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C] 요구하는 한 방식이 될 수는 있겠다. 모양새는 위협적이겠지만 태도를 최대한 정중하게 하자.

[D] 채증 당한 이후에는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다. 성형수술을 하거나 회사를 그만두는 식의 강력한 대처 밖에는...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사회자] 다른 케이스가 더 있나?

[C] 농성장에서 투쟁 당사자와 시민 단체 (시민들)와 충돌할 때.

[사회자] 시민 단체를 적대자로 볼 수 있을까?

사실 시민단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좀 애매하다. 힘의 균형을 따져볼 때도 그렇고.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경우들은 다 주어진 상황에 수동적으로 대처하는 것들이었으니, 시민 단체와 만날 경우는 가이드 라인을 본격적으로 대입하기에는 무리가 있겠다.

[E] 연대체 중 어떤 단체나 개인이 폭력 노선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C] 당사자가 비폭력 노선을 택하려 한다면 우리가 당사자와 폭력 노선을 취한 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중재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우리 안에서 할 수 있는 / 연대체 안에서 할 수 있는 기도회 외의 활동 (10.29)

연대체 안에서의 활동	단독적 활동
◎ 방어적 연좌/연행 = 가능하다 ◎ 지원행위 = 주된 방식 - 연행장면 등 현장 상황 사진찍고 SNS에 게시, 게릴라 기도회 (찬양집회 등 : 창조적 비폭력 저항 방식 = 돌발상황 만들기), 현장의 선봉에 있는 이들에게 물과 식량 등 필요물품 전달, 경찰과 협상하고 해산/연행시도 늦추기 ◎ 투쟁 후 처리 (후방지원) - 성명서 쓰기, 연행자 보호 (인권침해 감시, 지지방문), 벌금 모금 행사 (바자회, 공연, 십일조), 투쟁 관련상품 만들기 (기념품, T셔츠 등)	공연 (음악, 연극 등...), 거리행진 (선전전+노방전도+십자가 행진), 바자회, 릴레이 1인시위, 탄원서 작성, 편지 쓰기, 적대자에 대한 보이콧 행동, 투쟁주체 지지방문, 언론 인터뷰 (홍보), 서명 운동, 적대자의 베이스 캠프 주변에서의 철야농성, 수다회 / 집회 금지 구역에서의 “기도회” (기도회를 좀 더 적극적인 방식으로 꾸미는 것
무엇보다 기도회를 상황과 맥락에 따라 가장 효과적이고 창조적인 자리에 위치시키는 것이 혁명기도원의 현재 방침이자 일반적인 흐름이라는 결론이 도출. 모든 또 다른 투쟁 방식은 기도회로부터 출발하고 수렴된다.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혁명기도원 (Revolution Prayer Center) “착하고 귀여운 성도들의 꽃동산”		Guide Line “기독교적” 비폭력 직접 저항	전략적 접근인가? 도덕적 접근인가?
목적 : “적대자의 변화” (어디까지 적대자인가?, 어떻게 그의 인격을 고려할 것인가?, 그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문제 없는가?)			
물리적 / 정신적	폭력	물리 / 직접 / 의도	- 개인의 신체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것 (출혈, 염좌, 타박상 이상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
		물리 / 간접 / 의도	- 개인의 재산(동산)에 상당한 위해를 가하는 것 (사용에 지장 초래)
직접적 / 간접적		정신 / 직접 / 의도	- 언어폭력 (성적 모욕감을 유발하는 행위, 욕설, 조롱, 티꺼운 표정, 썩소, 살기, 너 몇 살이야? 막말 현수막 등) - 신상공개 ²⁾ , 협박 ³⁾ * 기독교적 행위는 목록에서 제외 ⁴⁾
		정신 / 간접 / 의도	- 소문내기 (조리돌림, 마녀사냥) - 약점 캐기 - 덕심(적대자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공격 ⁵⁾
적극적 (의도적)	의도의 문제 (행위의 왜곡 ⁶⁾)	비의도적 폭력	- 가이드라인 안에 해당되는 폭력이 발생했을 경우로 제한하여 대처하며, (행위 주체의) “사과 / 무시 / 행위에 대한 적극적 변호” 로 나누어 태도를 취한다.
소극적 (비의도적)			- 정당방위일지라도 반사적 폭력의 빈도가 높은 멤버는 후방 배치하되,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교우의 권면(마 18:15-20)” 에 따르도록 한다.

● 다른 연대체가 우리 가이드라인을 벗어난 행동을 할 때 : 당사자와의 협의를 포함한 논의 뒤에 우리 가이드라인 안에서 독자적으로 행동한다.

2) 제한적 공개가 원칙. 최초 입수자만 보유. 단체 수준의 행동에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 사진을 급하게 공유해야 하면 모자이크 처리.

3) 합법적 범위에서의 조치를 고지할 경우, ‘투쟁 사안에 대한 약점’만 활용할 경우, 적대자의 주체성을 발휘할 가능성을 존중할 경우는 협상으로 간주, 행위 가능하다.

4) 방언, 대적, 축귀, 안수 기도, 전도 등인데 상황과 맥락에 따라 결정한다. 상대방을 직접 공격하는 것은 지양. 일반적인 기도회의 경우 투쟁 당사자와 협의.

5) 인격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면 가능하다.

6) 행위자 입장에서는 의도적, 비의도적인 비폭력 행위를 했지만 그것을 당하는 입장에서 폭력으로 인지하고 반응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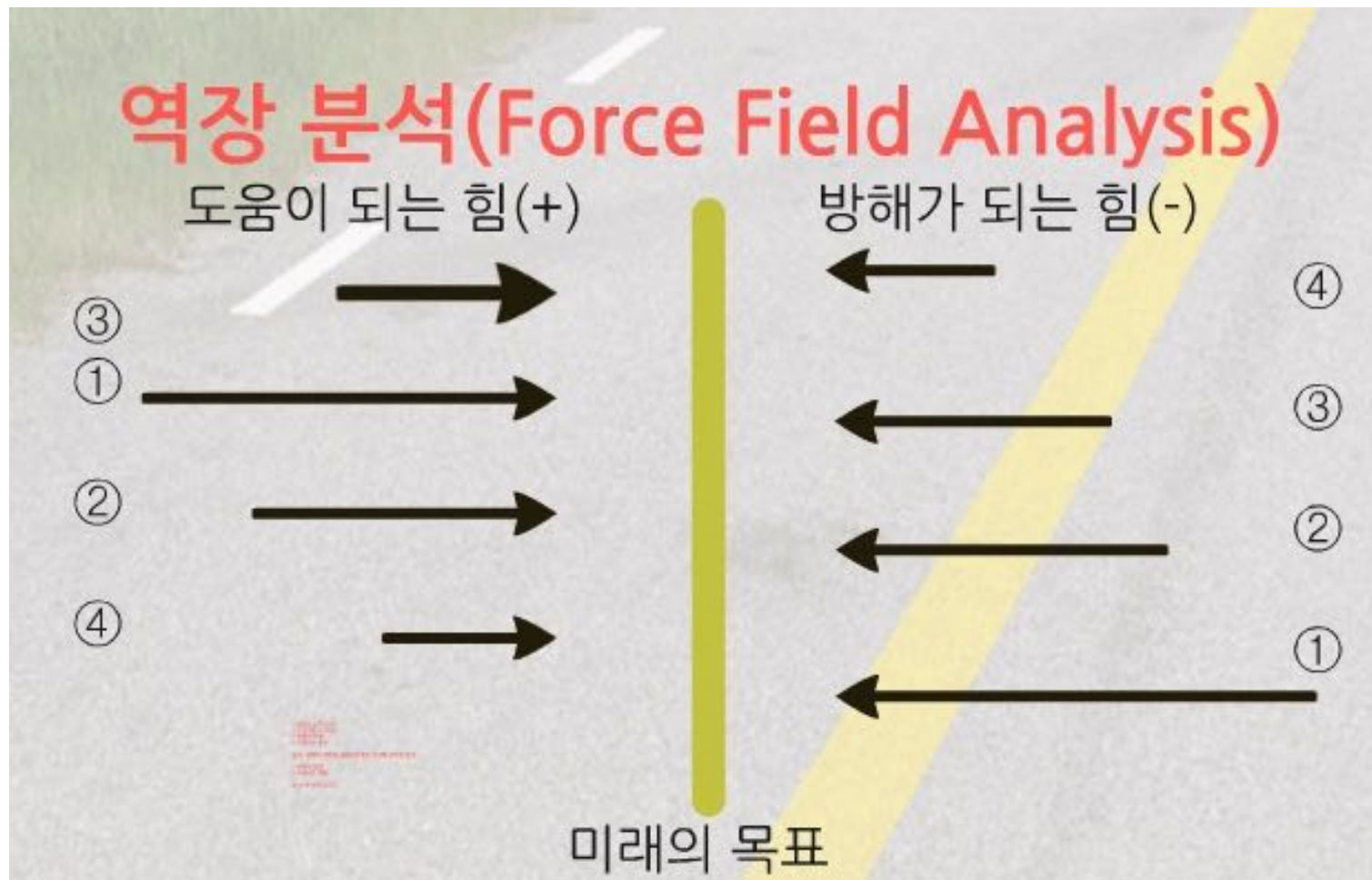
Guide Line 케이스 적용

1. 농성장에 적대자가 등장했을 때 (적대자의 목적에 따라 달라짐)		
협상, 회유	당사자와 상의하여 태도를 결정. 비폭력적인 대처를 할 수 있도록 완충지대 역할을 하자. (만약 당사자나 연대체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우리 내부에서 다시 결정한다) 회유의 경우는 협상을 유도한다.	
위협	농성장이나 투쟁 당사자에 대한 적대자 행동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거나 저지한다. 상황에 따라 기도와 찬양을 병행한다.	
정찰	소극적으로는 농성장이나 당사자에 대한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한다. 적극적으로는 협상 테이블로 유도한다.	
침탈	적대자가 불법일 때	불법과 합법에 관계없이 최대한 비폭력 저항을 한다. 차후 투쟁을 위한 포석으로 삼는다.
	적대자가 합법일 때	
	우리 측이 불법일 때	
	우리 측이 합법일 때	
2. 농성장 인근 주민의 항의 (의도의 왜곡)		
사과, 무시, 적극적 변호, 면담, 먹을 것을 준다 (환대) = 굶굶		
3. 투쟁 당사자나 연대 단체의 신상이 털렸을 경우		
평상시에 안전지대를 확보한다. (신상 보호에 비교적 취약한 멤버를 보호한다.) 신상이 털린 후에는 법적 대응 (고소), 사건 자체를 도덕적 우위로 활용, 이후 상황에 따라 다양한 대처를 한다. (탄원 등) 신상을 털 개인이나 단체를 알아두고 규탄한다.		
4. 경찰이나 용역의 채증		
채증 시도의 경우는 채증 도구를 뺏은 후 상황이 종료되면 돌려준다. 본인의 얼굴을 가린다. 카메라 앞에 장신을 배치한다.		
채증을 당했을 경우는 채증 사진을 보여달라고 하고 지워달라고 요구한다. (법적 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주로 능동적으로 행동을 할 때를 가정했다면, 케이스 적용에서는 수동적으로 만들어진 상황을 가정하여 적용해 보았다.

비폭력 사회변혁운동 전략세우기

1. 역장 분석(Force Field Analysis)



- * 상대는 누구인가?
- * 지지자는 누구인가?
- * 상대의 약점
- * 지지자의 강점

분석 : 상대의 약점과 지지자의 강점 사이에 일치점 찾기

- * 상대의 강점
- * 지지자의 약점

분석- 주 전략 고르기

전략과 관련한 다른 결정사항들

- * 캠페인의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변화 고려
- * 언제 시작할 것인가?
- * 타임라인(일정)
- * 초창기 방법, 후반기 방법
- * 누가 모든 것들을 실행할 것인가?
- * 의사결정 방법
- * 상대가 할만한 행동들과 그것들에 대응하는 방법

혁명기도원 비폭력 저항 운동 모임

* 억압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구체적인 행동, 어떻게 전략을 집행할 것인가, “수단”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특정한 목표를 가지고 실행하는 구체적인 행동

*반드시 전략 및 목표와 맞아 떨어져야 한다

예) 영화에 묘사되는 통념을 비판하는 시위

상대를 진퇴양난에 빠뜨리기, 상대를 존중하는 패배를 안겨주기

각각의 전술에서 이 문장의 빈 칸을 채워 넣자 :

이 행동은 ()을 사용하여 ()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기획되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진 자원을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이라고 결정했기 때문이다.

비폭력 시위와 설득

- 성명서, 배너, 리플렛, 피켓팅, 행진, 토론회

비협조

- 사회적 : 외면, 사회적 규범들에 대한 보이콧
- 경제적 : 경제적 보이콧, 주식투자중단, 수출 금지, 파업
- 정치적 : 선거 보이콧, 징집장 불태우기

비폭력 개입

- 심리적 : 단식
- 물리적 : 봉쇄, 농성
- 사회적 : 새로운 사회적 규범 따르기, 대안적사회기구 만들기
- 경제적 : 토지점거, 대안시장
- 정치적 : 기밀 정보 드러내기, 독립정부

*진샤프의 198가지 비폭력 직접행동

소그룹 토론

- 송전탑 문제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멀어지고 있는 지금 어떤 구체적인 방법을 실행할 것인가? (가정: 언론이 전혀 언급하지 않음, 현수막, 행진, 집회 할 수 없음)

의사결정 및 코디네이션

- 위계가 있는 조직
- 위계가 없는 자발적 조직